

진리를 찾아서

SEARCHING FOR TRUTH

JOHN MOORE 著
BCC 譯



WORLD VIDEO BIBLE SCHOOL



We are thankful to the Lord for the opportunity to produce this material for the sake of the Kingdom. He makes all things possible. Thanks to those who financially made Searching for Truth possible.

World Video Bible School

Searching for Truth Korean edition
translated by BCC

Visit lib.bible.kr to view online "Searching for Truth" series.



진리를 찾아서
Introduction



창조주 하나님
The Creator



신앙의 권위
Authority in Religion



교회에 대하여
The Church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세례
About Baptism

본 소책자는 약 네 시간 분량의 온라인 “진리를 찾아서 (Searching for Truth)” 비디오 시리즈의 한글 자막을 위한 원고입니다. 본 번역본의 최종 수정 날짜는 2014년 6월 25일입니다. 한글판 “진리를 찾아서” 시리즈는 美 World Video Bible School의 허락을 받아 제작했으며 한글판의 저작권은 BCC에 있습니다.

본 시리즈의 비디오는 아래 BCC e도서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한·영 PDF 원고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여름 이후에는 BCC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비디오와 원고를 제공해 드립니다.

lib.bible.kr

차례 (한글판)

소개	1
창조주 하나님	6
신앙의 권위	17
교회란 무엇인가	32
하나님의 집	46
세례	61

Contents (영문판)

Introduction	79
About the Creator.....	85
About Authority in Religion	97
About the Church	114
About the House of God	129
About Baptism	146

본 소책자는 한글판, 영문판, 한영판 등 세 가지 형태로 제작되며 BCC e도서관 (lib.bible.kr)에서 한영판 PDF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

“진리를 찾아서” 비디오 시리즈 첫 장면은 묘지에 운구차가 들어오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카펠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잔 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도 매 분마다 107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죽는 사람의 숫자는 하루에도 15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죽는다니 믿기 어렵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죽음은 늙은이와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은 존재할까요? 지옥도 존재할까요? 당신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13-14)

예수의 말씀을 주의해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이는 적지

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적은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1-2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단지 주의 이름만 불러서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어 예수 앞에 선다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까요? 아니면 “어서 천국에 들어오너라.” 하고 반겨주실까요?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굳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심이나 두려움 혹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더라도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학자, 신학자, 화학자, 어머니, 아버지, 목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서로 다른 많은 답변들이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서로 모순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참된 답변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들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원으로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문과 두려움과 걱정 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십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책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이는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리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가 실제로 존재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혹은 저것을 믿든지 상관없이 진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진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표준이 됩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보여줍니다. 저나 다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진리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당신이 돈의 노예, 알코올의 노예, 마약의 노예, 포르노의 노예는 아닙니까? 당신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혼생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자녀양육에 실패하셨습니까?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시기, 미움, 인종차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그런 억누름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불의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거짓 종교행위와 사람의 전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1세기에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종교 행위 때문에 큰 짐을 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여러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 때문에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전통과 의식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전통이 우리의 예배를 헛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는 성경에 없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전통이나 사람의 의식에 얽매어 계십니까? 그런 가르침이나 사람의 계명에 얽매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 종교의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이와 같은 속박과 제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나 두려움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죄악의 행동이나 거짓된 종교행위가 그렇듯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의 말씀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 줍니다. 온갖 거짓말과 악행의 아버지인 사탄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며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신 밖에는 진리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진리이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그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귀한 보화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23)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9절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 걸쳐 죽음의 찾아왔음을 이 묘지가 보여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진리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다 보장받은 사

람은 없습니다. 80세, 90세, 더러는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땅 위에 사람이 사는 한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진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느낌을 볼 때 나는 이미 진리를 발견했다 하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진리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지함 그 자체로는 구원받기에 불충분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대단히 종교성이 강했으며 자신의 믿음에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일 만큼 자신의 믿음에 열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만큼이나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성경이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리를 아십니까? 그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더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지구, 경이로운 인체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모두 지적 존재인 창조주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창조주에 대해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 일까요? 창조주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가 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창조주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을 잔 모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참된 해답을 가장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찾는 일을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런 곳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연 속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복잡한 고속도로와 시장을 벗어나 이런 곳에 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인데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셋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럼, 첫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페일리는 18세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의 근거로 논증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자연현상은 주의 깊게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위대함에 놀라게 된다.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작용 속에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지적 존재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 생명체 속에 생명의 유지와 번식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돌보고 있음을 증거해 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기체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자세히 살피고 비교해 보면 놀라운 정도로 다양하다. 이런 유기체들은 어디나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사를 총망라해 지적 창조주의 존재증거를 제시하는 것만큼 큰 주제도 없다.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

이렇듯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이 구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주와 우리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Brad Harrub, Ph.D. (신경생물학자):

시인 없는 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축가 없는 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인 디자이너가 없는 디자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포의 복잡성, 대기의 복잡성, 행성간의 거리 등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경조직을 예로 들면 문자 그대로 수십 억 개가 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포들이 각기 어떤 의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신호를 몸의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하나의 세포 안에도 이온 채널이 있고 전기가 통하는 채널이 있고 세포막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그 기능은 곧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포 핵 속에는 생명코드인 DNA가 들어있어 자신의 세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포 속에도 살아있는 생명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면 할수록 지적인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연이 그분의 어떤 면을 보여줄까요? 자연은 그가 지적 존재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이 복잡한 우주를 보존유지하시는 뛰어난 설계자임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유기체들을 지으신 분이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구조를 지으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이로운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할 수는 있으나 나무나 기타 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발밑에 있는 풀만 쳐다봐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11-13)

이 구절을 통해 첫째로 우리는 사람이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연만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나타내셨음을 봅니다. 성령이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유래와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동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입니다.

Chuck Horner (성경 교수):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 원어를 보신다면 이를 “데오뉴타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로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고 뉴타스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Keith Mosher Sr., D.Min. (성경 교수, 전도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지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죽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직접 온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가 자의로 폰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20-21)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산물임을 여기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큰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마르스 언덕에서 행한 연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연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 연설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에게 개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와 하나님을 전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테네에 들렀는데 이곳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빠뜨린 나머지 그 신의 노여움을 살까 봐 두려워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여러 철학자들과 당시 학식 많은 지식층도 만났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으로 유명했고, 정치, 문학, 학문을 중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종교

나 도덕에 관련된 토론이 가끔 열리던 마르스 언덕에 서서 우주를 지으신 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 연설은 참으로 흥미롭고 우리 인간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덴 사람들이 말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바울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사도행전 17:22-26)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변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로 바울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복잡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바울이 연설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헛된 예배를 드린 아테네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를 잘 알지 못한 채 헛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연설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26-29)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계를 정하시고, 인간사와 나라의 흥망에 관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금이나 돌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B. J. Clarke (전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도 불가능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스런 가족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인 자녀와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속해 있기를 갈망합니다. 서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Dr. Stephen Springer, LPC (교수, 전도자, 공인전문상담사):

역사를 통해 인류는 항상 뭔가를 고대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또 다른 시대들을 살

퍼보아도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랑을 항상 갈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했지만 정작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친구와 맺는 올바른 관계인데,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버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이런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카운슬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을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얻으려는 해답을 얻으려 이런 전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찾으므로 그 해답이 어렵듯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찾는 해답은 바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기회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책을 읽고 그대로 행함으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성경이 보여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해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돌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는 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30-31)

방금 들은 말씀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 얻을 길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

수의 부활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B. L. Clarke (전도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죄인이든, 무슨 죄를 저질렀든, 죄를 아무리 크게 짓고 많이 저질렀다 해도 우리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잔해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Garland Elkins (전도자, 성경 교수):

주님께서는 진실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어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30)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지 들으셨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3)

Alfred Washington (전도자):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회개했다 할 수 있습니다.

Keith Mosher Sr., D.Min. (성경 교수, 전도자):

회개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므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회개란 경건한 슬픔에 기초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우리가 어떤 자녀를 두었든 상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불러 회개하라고 하십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31)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10-11)

이러므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과 행하지 못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길에서 돌아서고 거짓된 생각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 로마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자 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역한 사람들을 징계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판사가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판사를 공의의 판사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그 판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법을 지

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심판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12)

Curtis Cates, Ed.D. (전도자, 성경 교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11-12, 고린도후서 5:10을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이처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한 일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진리를 찾아서”에서 다룬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만 살펴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나무 같은 피조물만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이런 뜻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뜻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바울 시대에도 창조주에 대한 이와 같은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길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찾아서” 이 강좌를 통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나 당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돌아서고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찾아서”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참으로 올바른 믿음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신앙의 권위

오늘날 세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매우 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관한 문제일 경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의 주장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옳다는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성경이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교리집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신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까요? 신앙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누가 어디서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이를테면 누가 그런 규정을 정하며, 이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잔 모어와 함께 하는 “진리를 찾아서” 이번 과정에서는 신앙의 권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을 알고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어떤 경기서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곳과 같은 경기장에서는 정해진 규정집과 심판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팀이 어떤 경기장에서 겨루기 위해 만날 때는 권위 있는 심판이나 경기위원회가 승인한 규정집과 그 권위를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셈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원리는 그것이 운동경기든 시민 조직이든 학교활동이든 교회든 혹은 국민이 있는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인정된 권위와 정해진 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Charles Smith (심판):

어떤 경기든 공인된 권위와 정해진 규정이 필요합니다. 규정집이나 공인된 심판 혹은 위원회 없이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세계 각국의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통일된 방식에 따라 경기에 참여합니다. 표준이 되는 권위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경기에 있어 표준이 되는 권위와 규정은 최고 권위 기관인 국제올림픽 위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들 가운데 위원장과 집행위원회를 선출합니다. 그 위원장과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합니다. 또, 규정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지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규정집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정집이 제반 범위와 경기에 대한 규정과 경기를 어떻게 심판할지를 결정하는 권위 있는 문서가 됩니다. 이런 권위체계와 규정집이 없다면 하계올림픽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규정집이 없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만든 권위의 기준과 규정집은 이렇듯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경기보다 중요한 일에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앙의 영역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신앙에도 유일한 권위가 존재하는가?” “신앙생활에도 권위 있는 문서 혹은 규정집이 있는

가?" 교회에 적용할 규정, 이를테면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를 결정한다고 할 때 어떤 이는 교리집을 살펴보고, 어떤 이는 교단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보고, 어떤 이는 자기 마음에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적절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자리에서 경기를 할 수 없고 분열과 부조화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치와 동의, 이를 테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이런 규정을 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규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권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은 이렇듯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다음 네 가지 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 권위란 무엇인가? 2. 신앙의 권위는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있는가? 3. 이 권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4. 오늘날 신앙에 관련해 여러 권위가 존재하는가?

먼저, 다음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권위”라는 단어를 몇 차례 언급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권위란 “복종하게 만드는 권한 또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명할 수 있는 권한, 도덕적 혹은 법적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권위의 정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마태복음 8장 9절에 있는데, 예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यो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마 8:9)

권위란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이를 법으로 제정하는 권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저자”라는 단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만들고 고안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1)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명할 수 있는 권한 (2) 도덕적, 법적 우월성 (3)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안한 사람 그런데 신앙의 권위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권위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2. 신앙의 권위는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규정을 만드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누가 이에 관한 도덕적, 법적 우월성을 갖고 있을까요?

James Meados (성경 교수):

하나님이 근본적인 권위의 근원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대답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권한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Ben Mosley (대학 교수):

사도행전 17장 24절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는 천지의 주님이시고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과 온갖 동물은 그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은 온 땅이 주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손수 집을 짓고, 돈을 들여 가구들을 들여놓고 당신과 자녀들이 사는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지 당신이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이 이미 만들어놓은 규정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규정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들은 그의 집이며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의 집에 사는 우리는 그 규정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드신 분이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사를 주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브리서 1:1,2).

이 구절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피조물을 다스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 아들이시니 예수

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들으셨지요? 만물 곧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것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포함됩니다. 다음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1,2).

우리는 이 구절과 또 다른 구절들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께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Curtis Cates, Ed.D. (전도자, 성경 교수):

우리 신앙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19절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19-23)

방금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보면 참으로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통치를 주관하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는 참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만물이 그의 발아래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이 권위는 그의 말씀처럼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18)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갖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모든 권위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곧 신앙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의 궁극적 근원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께 이 권위를 주셨음을 단정해 말할 수 있습니다.

Bobby Liddell (전도자, 성경 교수):

그리스도가 신앙에 있어 우리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에 대하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마태복음 17:5)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권위가 어떻게 알려졌는가? 이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피조물을 다스리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법을 피조물에게 어떻게 집행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 운동경기를 잠깐 또 다른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운동경기에 함께 참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경기규정을 몰라도 괜찮을까요? 규정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지 누가 권위 있는 위원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정보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과 심판과 각 참가국에게 규정과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에 관한 일도 하나님이 권위임을 아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려면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주신 규칙과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는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 주실까요?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로 채워주실까요? 이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래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 야곱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11) 한번은 바벨론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중요한 메시지를 쓰

는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니엘 3장) 한번은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 발람 선지자에게 전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2:28)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직접 명령하고 지시하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브리서 1:1,2)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사실이지만, 히브리서 1:1,2를 보면 오늘날에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과 명령을 알 수 있는 방법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명령과 규칙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님의 공생애는 전도와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는 진실로 동정을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지극히 염려하셨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동기를 부여하고 동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설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경건한 행동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관습에서 떠날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죄를 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명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 있는 말씀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28,29)

진실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노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의 말씀의 능력과 필요성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25)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라.” (요한복음 6:63)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
리는 그가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계실 때 그는 사람들
에게 그의 뜻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직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궁극적 권위를 따를 것
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땅에 계실 때 입으
로 직접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면 오늘날은 그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이제는 몸의 형체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
므로 누가 무엇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신약성경 저자들이 그들의 기록에 대해 그 유래와 저작권을 어떻게 말하는
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
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11,12)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 쓸 것을 예수께로부터 명령 받은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
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
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10,11)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
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쓸
때 성령의 인도와 지도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가 자의로 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
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20,21)

방금 들으신 이런 구절들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Chuk Horner (성경 교수):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기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삶을 위한 그의 규칙들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행동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할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이 꼭 순종하고 따라야 할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그 법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 혹은 “기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얻으려면 말입니다. 이것을 올림픽경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고, 그 권위가 규정집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선수와 심판이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지 알고 싶다면 규정집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말이죠.

신앙에 관한 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땅에 계실 때 예수는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집 혹은 안내서로 주어진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며, 하나님의 규정을 알고, 누가 우리의 최종 권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에서 공식 규정집을 연구하고 잘 살펴본 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선수가 어떤 경기든지 합법적으로 참가해 메달을 따려면 그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규칙과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2:3-5)

성경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집입니다. 만약 성경에 있는 규정을 거절한다면 우리자신을 “그리스도인의 경주”하는 데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자격을 잃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할 때 바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규정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48)

이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위가 기록된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나?”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그의 권위를 계시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규칙과 안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생명을 위한 그의 명령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규정집인가?” 그리고 본 과정 마지막 주제로 “오늘날 권위의 기준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덧붙여서 혹은 신약성경을 대신하는 권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Carl Carner (전도자, 성경 교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강조하고, 사람이 기록한 것에 중점을 두는 부류도 있고, 사람이 말한 것에 중점을 두는 부류, 사람들이 동의한 것에 중점을 두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주제를 다룬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 특정 교단의 장정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장정은 본 교회의 헌법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걸쳐 개최된 교회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본 교회를 태동시킨 것이다. 이 장정은 본 교회를 치리 하는데 필요한 법과 절차를 세우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경 외에 덧붙이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성경만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권위로 보는 사람들보다 다른 책을 첨가하는 경향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이 책은 믿음의 신조라는 책인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회의 표준 사역은 권위로 기록된 다음 교리 문서에 따른다.” 이 조항의 뒤 부분 내용입니다. “교회의 투표로 결정된 믿음과 교리의 권위 있는 지침은 다음 네 개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네 책이 있는데 성경은 그 네 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단에 자신들만의 책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규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다른 책들이 정말 필요한가?” 제가 성경을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경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권위의 표준으로 신약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리서, 신조, 교회 지침서, 교회 전통, 총회, 협의회, 신앙고백서, 장정들이 교회의 규정과 권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다른 기준이나 규정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로지 성경으로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까요? 성경만 읽고는 교회조직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세히 읽어서는 어떻게 좋은 남편,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교훈(교리) 곧 가르치는 것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모든 선한 일을 지도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베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의 신기한(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3)

여러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있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주신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도 성령께서 추가적인 계시를 주지 않으셨나요? 그 성령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말씀에 없는 메시지를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 곧 진리의 성령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자기 권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한복음 16:13)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도들은 성령으로 모든 일에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고, 모든 진리로 인도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신앙 면에서 모든 진리로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또 다른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에 관한 모든 진리가 사도들 시대에 다 계시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한 대로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바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 되었습니다. (유다서 1:3) 믿음은 제1세기에 부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 19세기 혹은 그 후에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번에 (한번에) 모두 전달된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모든 진리들이 제1세기에 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다른 복음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 점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라디아서 1:8)

들으셨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제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생존했던 시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권위에 있어 표준이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궁극적인 권위를 행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 오늘날 신앙의 권위에 있어 표준이라는 점도 배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성경과 두 언약을 살펴보는데 할애하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이번 주제는 신앙의 권위인데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신약성경을 오늘 우리의 신앙적 권위로 강조하는 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은가?” 틀림없는 지적입니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과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의 기록은 구약을 의미함)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구약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구약(옛 언약)이라 부를까요? 구약에 기록된 법을 오늘날 우리도 꼭 지켜야 할까요?

Denny Petrillo, Ph.D. (구약학 및 유대학 교수):

“구약(舊約)”이라고 해서 더 이상 소용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면 옛날 계약이 있고 새 계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당신의 백성과 새 계약(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옛날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계약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옛 계약은 시내산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31-3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새 계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8:13이 바로 예레미야 31:31을 인용한 구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말하면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더 이상 강제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법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목적은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새 언약의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갈라디아서 3:24,25)

방금 들은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혹은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제1세기에 가정교사는 주인의 자녀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학습을 지도했던 주인이 신임하던 종이 더러 있었습니다. 종의 임무 가운데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시켜 학교에 들어가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어른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이런 가정교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정교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문맥을 보면 옛 언약의 법을 초등교사 혹은 가정교사로 비유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인류가 장성할 때까지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옛 언약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믿음의 체계로 인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 그 체계를 “그리스도의 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께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도 그 십계명 아래 있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은 모세의 법 가운데 일부분으로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15)

십계명, 레위기 에 나오는 피 제사, 성막 예배, 분향, 특별 절기 같은 것은 그 속 성상 모두 일시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메시야의 오심과 그의 새 언약을 준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가져오셨을 때 옛 법(옛 언약)은 끝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옛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에 그것은 옛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13)

그렇다면 옛 언약이 사라졌으므로 옛 법은 폐해졌으므로 간음을 저질러도 괜찮을까요? 거짓말 하고 도둑질해도 괜찮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아홉 계명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만찬을 지킵니다. 이 만찬은 마태복음 26:26-28을 보면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사도행전 20:7을 보면 매 주 첫날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아홉 계명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도 나오고 거기서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성경에 포함된 이 새 언약(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31과 같은 성경구절을 읽으면 그 선지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세워진다고 예언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옛 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 곧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찾아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권위”라는 단어는 통치 혹은 다스리는 권리를 뜻한다. 2. 하나님이 권위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다. 3.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4.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따라 살아야 할 법이다. 5. 그리스도가 그의 권위와 뜻을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알려주셨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충분한 안내자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성장 유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2)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이 책 성경을 꼭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있어 어떤 규정이 필요한지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 우리의 권위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위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지침 안에 들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계 설정에 대한 것들을 신약 곧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이 시리즈에 계속 저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저와 함께 진리를 찾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교회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100 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만큼 참으로 중요한 단어임에 틀림없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까요? 모든 교파를 총망라해서 교회라고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인격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살펴봅시다. 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속해야 할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셨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런 내용을 잔 모어와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면 이런 건물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전에서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아도, 공적 예배를 위해 따로 마련된 건물 혹은 거룩하게 구별된 건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겠습니까? 진실로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나 다른 어떤 교회의 건물이 생기기 훨씬 전에, 교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기관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이며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면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보겠습니다. 1. 교회란 무엇인가? 2. 교회가 본질적인 것인가? 3. 교회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가?

그럼, 첫째 질문부터 보도록 합니다. “교회” 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단어에 얹힌 흥미로운 역사가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중요하게 적용되어 쓰였습니다.

Keith Mosher Sr., D.Min. (성경 교수, 전도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church)라는 단어는 원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사도행전 8:1과 9:1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1) 사도행전 9:1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님의 제자”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 라는 단어는 문맥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8,19)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볼 때 첫째,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소유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가 이 교회의 설립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 나라 (교회)의 열쇠를 갖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약 1년이 지난 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권위의 열쇠를 갖고 나라의 문을 열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이 장을 읽어보면 열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열 두 사도들에게 내려 능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9-11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전에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언어(방언)로 여러 나라에서 온 민족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성령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주었고, 예수께서 주(主) 되심을 알려주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중요성과 다윗의 왕위에 예수께서 높이 들리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 그들이 어떻게 해야 죄 사함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38,39)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곧 구원받기를 원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날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한 교파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교파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40,41)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47)

누가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누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 수에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당시에는 어떤 교파도 없었기 때문에 교파에 더해진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이미 구원한 사람들 가운데 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47) 이를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을 살펴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처럼 지역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주적인 의미로는 온 세상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에베소서 5:23) 이렇게 표현했고 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매우 의미 있는 용어로 묘사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사역 곧 교회의 사역과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교회”라는 단어의 뜻처럼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어둠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또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왕과 그 나라에 있는 시민과 종들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의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법아래서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속 문화에서 성전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이 거하는 장소나 집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성령이 각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가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족”은 종종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족으로 보면 그 구성원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형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몸”으로도 불렀습니다. 사람의 몸이 머리와 지체로 구성되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몸의 각 지체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온 지체가 연결되어 움직이며 일치와 하나 됨을 보여주듯이 구원받은 사람들 곧 교회도 일치와 하나 됨을 보여주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1:27에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 바울이 말한 다음 두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24)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그렇습니다. 몸과 교회는 하나이며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성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회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속성과 본질을 더 자세히 묘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전도자에게 보낸 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14,15)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집을 의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견고한 반석 주님의 신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베소서 2:20에서는 예수를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기초입니다. 베드로전서 2:5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집을 이루는 산 돌임을 봅니다. 또, 디모데전서 3:15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가서 진리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문입니다. 그가 문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반드시 올라가야 할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구조이며 열개입니다. 교회는 예수 곧 모퉁이 돌과 그의 거룩한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이며 중요한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예수만 주세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인자 예수는 좋지만 구원의 계획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꼭 교회의 일원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정말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에베소서 2:14-16)

이 구절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단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한때 단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1, 로마서 6:23을 보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10,11)

“화목하다” 혹은 “화목” 이라는 단어는 다툼으로 나누어진 양쪽이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됨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16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 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둘이 화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 곧 그의 몸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몸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 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 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다면, 반 드시 몸 안에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지 에베소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 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8-11)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 지혜라는 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준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독특한 조직부터 시작해서 교회예배의 독특한 형 태는 교회가 역사상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천교의 특성에서 볼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독특한 천교는 우리가 전에 살펴 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단절 이라는 배경을 통해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14에서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할 때 이 단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lfred Washington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 2:14에서 말한 답은 어떤 면에서 문자 그대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이 헤롯성전 안에도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단절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참된 친교를 나눌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약 아래서 하나님의 영적 복과 약속을 받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단절이 사라진다고 구약의 두 선지자 이사야와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두 선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통해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했습니다.

Alfred Washington (전도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중간에 막힌 답이 허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영적 복과 약속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정치적 입장, 교육 정도,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곧 그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적이나 인종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사람들의 지체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렇듯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2) 오늘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며 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한때는 국적과 사회적 신분이 이것을 갈라놓았지만 이제 그런 답은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7,28)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함께 어울리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경제적 차이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교회는 구성원끼리 서로 돌보고 염려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관대한 사랑의 정신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학대 받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과 선의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많

은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영적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11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더러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신 것”이나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살펴 본 대로 하나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께서도 예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것이 제1세기에 성취되었으며, 이 교회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이 나라는 제1세기에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13, 데살로니가후서 1:15, 요한계시록 1:9를 보면 성경 기자들은 그들의 생전에 이 나라가 실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나라가 로마제국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44)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열왕의 때”가 로마제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네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것이지만, 네 번째 제국 때 (역사는 이 시기를 황제들이 통치한 로마제국이라고 기록함) 그리스도의 교회(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는 기본적인 속성과 가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에베소서 5:23)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25) 이 구절에 나타난 소중한 진리가 많지만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 된 교회의 구주이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10 말씀처럼 참으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은 것이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하고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22-23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룰 마지막 질문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4)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나면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몸도 오직 하나라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와 몸은 동일한 것이므로 (에베소서 1:22-23)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한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예수께서 여러 교회들을(복수형) 세운다 하셨습니까? 그의 교회를(단수형) 세운다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교회(단수)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로 너무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도덕적 이슈와 교회 조직, 예배 면에서도 서로 생각과 믿음이 다릅니다. 만약 전화번호부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서로 다른 교회 이름들과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교회가 나뉘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요? 예수가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분열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사람이 만든 교회와 교파들로 나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취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

리와 교리서와 철학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나뉘어져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큰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을 “교파주의”라는 개념으로 용납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파주의란 무엇일까요?

Keith Mosher Sr., D.Min. (성경 교수, 전도자):

“교파주의”라는 단어는 간단히 말해 뭔가 이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그룹과 분리할 때 그것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나는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다.”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파주의가 그리스도교를 수많은 모으로 나누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을 다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서로 이름을 달리한 교파가 600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짓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신조, 교리, 도그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파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고 그 피 값으로 사신 교회를 쪼개고 부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0:28)

그러므로 교파주의는 분열과 종파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개념이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점입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교리나 사람의 평판에 따라 분열하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정죄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가는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설립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소아시아로 점차 이동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일어난 분열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11,12)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그런 행위를 정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

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10)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일부가 선호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 일부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런 분열의 죄악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고린도전서 1:13)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나뉘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22-26에서 예수는 그의 연합된 본질의 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다.” 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19에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가리켜 “바울파”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 이름에 바울의 이름을 붙이면 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교회에 유명한 설교자로 알렉스 캠블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역동적으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교육을 잘 받은 성경학자이고 수 천 명을 그리스도에게 개종시킨 전도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캠블파” 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캠블파 라고 부르려면 다음 세 가지가 사실이라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어야 합니다. 둘째, “알렉스 캠블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알렉스 캠블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 자신을 캠블파라 부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대신 알렉스 캠블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1:31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16)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

스도의 몸을 신조와 사람이 만든 교리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이름을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B. J. Clarke (전도자):

이 교회는 저 교회가 가르친 것과 똑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분파주의에 따르면 그 두 교회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몸, 한 교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한결같이 똑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여러 다른 그룹으로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신약성경 전반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20,21)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교회에 권면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1-6)

하나님이 일치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분열과 분파주의를 정죄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분열을 육체의 일로 규정하고 이를 행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 디아서 5:19-21)

이처럼 분열을 정죄했습니다. 방금 전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일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분별력을 갖고 온전히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신앙의 행위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것처럼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7)

무슨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의 허락과 승인을 받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승인을 찾고 계십니까? 당신은 주님의 교회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적 이름을 취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승인하고 받으시는 삶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방법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든 신실한 구도자들이 사람이 만든 종교적 이름들을 취하는 것을 그만두고 교리서, 신앙고백서, 비성경적인 모든 전통을 버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로 단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일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 “교회는 일치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목소리를 합쳐 “그렇다.”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곧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며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기초입니다. 참으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잘못된 종교적 관습과 사람이 만든 교회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

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당신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진리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순종하여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가족 곧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형태의 집이나 거처에 삽니다. 이런 집들은 모양도 각각이고 크기도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고 가재도구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집 주인에게는 모두 귀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집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의 집을 오늘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리를 찾아서 이번에는 잔 모어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디모데전서 3:14,15)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의 거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미 전편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구절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배와 성경공부를 위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16을 보면 교회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 성전, 그 집은 독특한 설계자와 건축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독특한 기관이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집을 탐구해 봅시다. 이 집의 특성과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었는가? 2. 그 집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3.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 곧 그의 집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예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3-18)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교회의 건축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하신 말씀 가운데서 "나의" 라는 소유대명사가 예수께 속했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의 교회의 설립자이며 소유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집과 누가 그 집을 맡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1-6)

이 구절과 교회에 대해 이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집을 지으셨다. 2. 그리스도인(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집이다. 3. 예수가 그 집을 맡은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 집의 건축자이고 따라서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의 집을 맡다(over His house)"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Chuck Horner (성경 교수):

그것은 모세시대를 뛰어 넘는 교회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모세시대에는 모세가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이것이 바로 중심 개념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 집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상속자이며 그 집 곧 교회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로새서 1:17,18)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권위를 갖고 계심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이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협의회도 이와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이점이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그의 집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권위를 그 집에서 행사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권위를 다 갖고 계십니다. 다른 이는 어떤 권위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알려면 예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축자이고 그 교회의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축자이고 소유주이며 그 집의 머리이시라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 집에 어떤 변경이나 무엇을 더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만드신 집을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하면 당신이 살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당신에게 집 지을 땅을 살 충분한 돈이 있고 손수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당신 집을 건축하는데 일할 일군을 고용했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당신이 설계한 대로 지으라고 위임했습니다. 방은 몇 개를 만들고 거실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완성된 후 당신 집에 친구와 친척을 불러서 머무르게 했다고 합시다. 당신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좋을 대로 당신 집을 고칠 권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허락 없이 그 집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머무는 한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여기 저기 벽과 문을 달고 고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집이 당신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손으로 손수 지은 집이고 당신 돈을 들여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집의 설계를 결정하고 그 집의 유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집 교회의 건축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를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 후 사도들에게 그 집의 기초를 놓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성령이 계시하시는 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으시고 소유하신 그 집의 거주자로서 우리 마음대로 그 집을 변경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고 그 집을 재건축하거나 그 집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집의 거주자로서 원래 모습 그대로

그 집을 놔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한 원리대로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 입니다. 그 집을 지은 분으로 그가 소유자이시고 그 집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집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집의 설계와 구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조직은 어떠한가, 그 집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집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임을 보여주는 어떤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당신의 집이 다른 집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듯이 주님의 집도 다른 집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집을 살펴보면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탐구해 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곧 신앙의 집이 신약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집처럼 보입니까?

그럼, 이 집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기초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집도 기초가 있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린도전서 3:11)

이렇듯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평판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와 학문을 기초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 문화적으로 용인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된 것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예수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이제 주님의 집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봅시다. 이미 배운 대로 주님의 집에는 건축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

그렇다면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누가 건축자입니까? 당신은 예수께서 세우시고 설립하신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이 집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이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28, 고린도전서 1:2, 갈라디아서 1:13, 디모데전서 3:5 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서 16:16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교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교회를 사신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28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돈으로 그 땅을 샀다면 그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당신이 지불했다면 누구 이름이 등기권리증에 들어가야 할까요? 틀림없이 당신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입했고 당신이 소유했으며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똑같은 이치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그의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붙여야만 합니다.

이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신부가 자기 이름 외에 다른 남자의 이름을 취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16)

당신이 출석하는 집(교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 집 곧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에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 조직을 갖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18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곧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심을 봅니다. 성경은 지역교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등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래지 않아 경건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장로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이 각 지역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고 인도했습니다.

Bobby Liddell (전도자, 성경 교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경적 조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은(로마서 16:16) 지역교회였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구성원들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지역교회의 조직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장로라고 불리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사도행전 14:23)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함께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를 목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서는 이 장로에 대한 세 개의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각 단어들이 혼용되기도 했는데 베드로전서 5:1과 사도행전 20:17,28에 나옵니다. 첫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장로(elder, presbyter)로 번역됩니다. 두 번째 용어인 "에피스코포스"는 종종 감독으로 번역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이멘"이라는 그리스어도 있는데 이는 목자 혹은 목동으로 번역됩니다. 이 모든 용어들이 똑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7-9의 자격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장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디모데전서 3:2-4)

이 사람들이 자격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이 감독들 혹은 장로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교회의 양 무리만 목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베드로전서 5:2)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서는 장로회의나 장로 한 명이 자신의 지역 교회 밖의 다른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면 에베소나 다른 지역 교회 일에 관여해 감독하지 않았고 다른 교회의 감독도 받지 않았

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대사제(주교) 같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사도들이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 제도 대신 신약성경에서 보면 교회들은 장로들의 지도 아래 조직되었고 각 교회의 장로들이 그 교회의 양 무리를 돌보았습니다. 곧 양 무리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B. L. Clarke (전도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준 모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교회에는 한 지역교회를 돌보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14:23) 베드로전서 5:22에서는 이를 가리켜 양 무리를 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지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의 장로를 두어 한 장로가 도덕적이나 교리적 오류에 빠진다면 하더라도 교회 전체 지도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두신 점검과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신약성경에 집사들이 있었지만 소위 집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집사들은 장로들의 지도아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1-8에 장로들의 일정한 자격조건이 나옵니다. 또한 8절에서 13절에는 집사들의 일정한 자격도 나옵니다. 제1세기에 전도자들은 교회의 감독이 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패턴) 속에는 전도자들이 장로들의 감독아래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독이란 장로와 같은 용어임) 그러므로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은 장로들의 권위 아래서 섬겼습니다. 전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교인들 역시 그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의 감독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3:17)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기초가 있고, 건축자와 이름이 있으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독특한 조직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신앙의 집(교회)도 이와 같은 주님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집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독특한 예배 형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4)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는 우리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태복음 15:9)

이처럼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기도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인 예수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했음을 이번에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교훈과 훈계를 위한 것입니다. 영적 영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나라에 속한 이들을 강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삶과 사역에 있어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강건함 유지에 필요한 양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덧붙여 주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연보하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세기에 하나님의 집이 설립 되자 교회 사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한 과부들이 있었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매주 첫 날 물질을 바쳤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수입 가운데 십 분의 일을 바쳐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하나님의 새 집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린도전서 16:1,2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얻은 대로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것으로서 기쁜 마음으

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6,7)

매주 첫날 연보를 드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매주 첫날 주의 만찬이 기념되었습니다. 매주 첫날은 교회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이 날 (일요일)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7을 보면 매주 첫날에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특별한 식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찬송, 연보, 설교, 기도 이 모든 예배 요소를 매주 행하지만 진부한 것이 아니듯 주님의 만찬을 매주 기념하는 것도 진부한 것이 아닙니다. 제1세기에 주님의 만찬은 교회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주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집임을 계속해 구분해 주는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회중이 함께 모일 때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로새서 3:16)

그렇습니다. 음악은 교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음악은 오늘날 많은 교파에서 행하는 음악과는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진 음악은 아카펠라였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동원되지 않은 노래였다는 뜻입니다.

Bep Mosley (대학 교수):

기악은 주후 7세기까지는 교회에 소개되지 않았했습니다. 처음 3,4세기 동안 교부들이 한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악기를 도입했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악기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설립된 후 처음 4-5세기 동안은 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00년 즈음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기악이 정례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기도입은 당시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악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파의 예배에 악기가 점차 도입될 때 악기 사용을 반대한 교파교회의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Bep Mosley (대학 교수):

1500년 즈음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을 때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이를 태면 잔 칼빈이나 잔 웨슬리,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 악기사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음악 그 자체는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악기 음악은 내가 싫어하고 혐오한다. 그것은 음악의 남용이다. 나는 악기사용으로 일어나는 그리스교 예배의 타락을 반대한다.” (아담 클라크 - 아모스서 6:5 주석에서 인용)

“예배를 드릴 때 악기가 보이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면 나는 악기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잔 웨슬리 -아담 클라크의 아모스서 6:5 주석에서 인용)

이처럼 옛날 여러 성경학자들이 예배에서 악기 사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오늘날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악기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B. L. Clarke (전도자):

예배 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에 대해 하신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지상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권위를 받아들여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에 대한 신약의 명령에는 악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5:19에 “시”라는 말은 살로에서 번역한 단어인데 이의 문자적인 뜻은 전적으로 “노래하다”입니다. 월터 보어는 그의 유명한 헬라어 사전에서 바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실 때 자동적으로 다른 형태의 음악은 모두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James Meadow (성경 교수):

우리가 악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승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악기를 쓰지 말라는 명령은 없지 않은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 의사를 찾아갔더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하고 설파제를 처방해 주었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보더니 "설파제를 처방했군. 그러나 나는 여기에 페니실린을 더 첨가해야겠어." 했습니다. 후에 처방전에 없는 약을 첨가한 것을 알고 약사를 찾아가 왜 첨가했느냐고 물었더니 "첨가하면 안 된다고 처방하지는 않았잖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의사의 처방전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곧 말씀대로 행하는 길뿐입니다. 예배시 찬양에 대해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구절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은 육성음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이 승인 받은 음악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 성경 어디서도 히코리나무나 호두나무를 쓰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하셨을 때 다른 종류의 나무는 모두 배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찬양은 분명히 아카펠라 입니다. 그것은 어떤 악기도 동원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악기가 사용되지 않았던가요?

Bep Mosley (대학 교수):

예. 구약시대에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매우 초보적인 계획으로 곧 히브리서 9:10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예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피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향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구약은 육적 혈통에 따라 특정 지파가 제사장 직을 전담했고, 계층을 막론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서 9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육체의 예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구약의 제도는 영적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여기서 진리를 찾는다는 점이 중요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에 사용할 포도 열매에서 난 것과 떡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중요함) 노래(singing) 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악기 연주를 배제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쌀밥이나 코카콜라를 쓰자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고 하

나눔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음에도 말이지요. 만약에 쌀밥과 코카콜라와 약기를 예배에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약기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에서 약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시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던 철저하게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까?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성경대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카펠라 음악이라는 독특한 특징과 예배의 기타 독특한 형태 이를테면 독특한 기초, 조직, 이름, 설립자 그리고 건축자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과 독특성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곧 주님의 집의 특별한 속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다른 특징은 독특한 교리에 있는데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곧 교회의 사역을 좁은 면에서 보면 전도, 권면,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독특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구성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사용하는 종교적인 이름들 가운데는 제1세기 쓰지 않던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받은 신자들은 그들을 위해 갈보리 위에서 생명을 바치신 그 분의 이름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을 공부해 보면 각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직자/평신도 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받은 모든 신자를 각각 제사장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 곧 그의 집에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집에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집사들이나 전도자들 (혹은 설교자들)로 그들이 갖춰야 할 일정한 자격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이들은 교회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이들을 다른 종교적인 호칭 “신부”나 “레버런드(지존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각 특성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께서 제1세기에 세우시고 설립한 그 집 성경에서 우리가 본 그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의 지역사회나 이웃에 세워질 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다. 이 질문은 목수이자 전도자로 사역하는 한 분에게 드렸습니다.

Thomas Moore (전도자):

교회는 집을 많이 닦았습니다. 집에는 설계가 있고 설계자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 주인에 따라 집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집마다 설계도가 있는데, 제가 이 집이나 다른 집을 지어야 한다면 설계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설계를 보아야 설계자나 건축자가 의도한 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이 설계를 들고 가서 북미나 남미로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느 곳이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이 집을 지을 수 있고, 오늘 아니면 50년 후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설계를 보고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갖고 여기 설계도에 나온 모범(패턴)대로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교회의 조직, 이름, 예배를 지시대로 따르고 주님의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약성경대로 가르친다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정 교파의 교리서를 들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 정관에 따라 교파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면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없겠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님의 집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든 주님의 집을 세우려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설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설계나 본(패턴)으로 성경이 사용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계도와 같은 뜻인 “본”이라고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1:13)

이번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사도들의 유전(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에베소서 2:19-22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운 예수를

도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16:19를 보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맨 것을(이를 헬라어의 원래 의미로 보면) 이 사도들이 땅에서 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뜯은 것을 이들이 땅에서 뜯다 했습니다. 주님의 대사로써 이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기초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신약성경에서 그들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도들의 유전(전통)과 명령이 들어있는 이 신약성경이 설계도이며 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친교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전통을 순종해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14)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계시한 대로 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 곧 사도적 권위를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 4:2에 나온 구약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요한계시록 22:18,19)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나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몸 주님의 집에 뭔가를 더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승인하시거나 의도하신 바가 아닌 것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신약성경에 계시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와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비교할 때 예수 위에 세운 교회를 발견하십니까? 당신이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까? 그 교회는 자격을 갖춘 장로들과 집사들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끝으로 당신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세례 받은 신자들이 더해지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집을 갖고 계시고 그 집은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집은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이 많은 독특성과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설계도를 따라야 함도 배웠습니다. 그 설계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집의 일원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라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집의 본을 바꾼 적은 없으셨는지요? 주님께는 오직 한 집만이 있습니다. 그 집이 당신의 지역사회에 있다면 오늘 바로 그 교회를 찾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에 없다면 오늘 이 성경을 설계도로 삼아 예수께서 설계하신 그 집짓기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요한복음 4:24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요한복음 17:17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원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례

오늘날 세상에는 세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세례는 성인들만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또,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습니까?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면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목적대로 받으셨습니까? 진리를 찾아서 이번 시간에는 세례에 대한 진실을 잔 모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 이것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우리 몸을 씻을 수 있으며 힘든 일을 마친 후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을 정결과 씻음의 중요한 요소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한 노아홍수의 물이든 유대교에서 정결례로 쓰인 물이든 신약성경에서 수 천 명이 세례를 받은 물이든 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되었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에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필기도구를 구하십시오. 준비 되셨으면 다음 질문들의 답변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현재 하나님과 구원받은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시점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만약 당신이 오늘밤 죽는다면 하늘나라로 갈지 지옥에 갈지 아시냐는 뜻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쓰셔도 됩니다.

둘째, 현재 혹은 과거의 한 시점에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셋째, 당신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물 뿌림(약식)이었습니까? 관수(물 부음)였습니까? 아니면 침수였습니까?

넷째, 유아 때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어 받으셨습니까?

다섯째, 당신은 세례 받기 전 구원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후에 받으셨습니까?

여섯째, 당신이 세례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면 세례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이 과정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고 느끼신다면 방금 전에 드린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답변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당신이 배우셨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일치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계명과 전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선한 뜻이나 진지한 태도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말씀의 권능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아서 이번 시간에는 세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세례란 무엇인가? 둘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넷째, 당신은 성경적인 세례를 받았는가?

그럼, 첫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Kenneth Ratcliff:

세례는 침수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당시 널리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종교적 용어로만 쓰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가 물에 가라앉을 때도 오늘날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여러 세례가 나오는데 이를 테면 요한의 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세례라고 할 때 우리 모두와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례는 항상 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나오니" 이와 같은 구절은 물속에서 세례가 행

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1세기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이디오피아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디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자를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수레에 앉아서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 빌립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디오피아인이 죄인을 대신해 고난당하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사야 53장 예언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희생적 속성을 읽으면서 이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청컨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시오? 자기를 가리킵시오? 타인을 가리킵시오?” (사도행전 8:34)

빌립이 한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35)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빌립이 이디오피아인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예수의 신성, 사랑,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틀림없이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자 그에 대한 반응이 곧장 나왔음을 살펴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8:36-38)

이 위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례가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과 이디오피아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물 가운데 있을 때 빌립이 이디오피아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는 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장사지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라.”(골로새서 2:12) 이 구절과 관련해서 감리교회의 유명한 성경학자이며 설교가 아담 클라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례를 성인들에게 베풀 때 사람을 물 아래 장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땅 한 가운데 장사된 것과 같은 표현이며 암시이다.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신 것과 물 가운데 장사하는 것은 몸의 부활의 상징이었다.” (아담 클라크 주석 p. 684)

종교개혁시대의 설교가였던 장로교회의 잔 칼빈도 세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세례주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고대 교회가 침례를 베풀 것은 분명하다.” (잔 칼빈 - Institutes, Vol. 3, p. 343)

그러나 오늘날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세례방식을 택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어디에서도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를 베풀 예가 없습니다.

Rick Brumback:

사람에게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교의 세례 방식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 가운데 물을 뿌리거나 붓는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물을 뿌리다는 ‘라히노’인데 이 단어는 동물 희생제사의 피를 뿌리다는 뜻으로 쓰였고, 그리스어로 붓다는 ‘케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단어가 신약시대에도 쓰였지만 세례와 연관해서는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세례와 연관해 쓴 유일한 그리스어는 '바티스마'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넣다, 가라앉히다, 담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릭 브럼백 - 전도자, 성경 교수)

그렇지만 제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 세례를 줄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를 보면 사도행전 2장이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큰 무리에게 세례 줄 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례를 주는데 항상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수로 행하는 세례는 아주 작은 장소, 욕조나 물통에서도 행해졌습니다. 둘째, 제1세기에 충분한 물이 강이나 팔레스타인 냇가에 있었고 고대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든 물 저장 시설도 있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미크베'라는 많은 세례탕이 주요 도시나 예배 장소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한 곳만 보더라도 고고학자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시설을 약 150 개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죄인들에게 요구된 세례는 침수로 행하는 세례이다. 곧 물 아래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세례를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죄인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과 관련해서 뭔가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제1세기 혹은 오늘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한 확실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 봅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된 다음 세 시대 아래서 피와 물을 하나님께서 영적 씻음과 정결의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세 시대는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는 물이 땅을 정결케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홍수를 그리스도 시대의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20,21)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이 정결과 언약의 수단으로 피의 상징 (동물의 피)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시대에도 하나님은 피의 상징을 정결과 구속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첫 아들의 죽음에서 구하실 때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묻히게 하여 죽음이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피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제사장에게 뿌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피에 덧붙여 물도 모세시대에 의롭게 함과 정결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물은 나환자를 다시 이스라엘의 캠프로(지경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시기에 위 두 요소가 쓰인 것은 신약시대에 이 두 요소 사용의 중요한 근거와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시대에는 예수께서 정결과 씻음의 목적으로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징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의 잔인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깨끗하고 흠 없는 그의 피가 우리를 사고,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값으로 드려졌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8,19)

예수의 피는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23-26)

Norman Starling:

“의롭게 함”은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죄가 없는” 혹은 “석방되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접근하는 시점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예수의 피가 구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피와 물을 정결과 씻음에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새 언약 아래서도 죄인을 의롭게하시는 과정 가운데 피와 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피와 물의 관계를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세례의 물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은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 민족을 총칭합니다. 이곳과 5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로마서 6:17,18)

여기서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들이 깨끗하게 해 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즉,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들이 순종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함을 받기 위해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닙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참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19,20)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야고보서 2:24)

순종의 필요성은 예수께서도 확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그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나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위로는 가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20,21)

진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죄인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그들이 순종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이 순종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

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17,18)

그들이 무엇에 순종했다 했습니까? 그들은 교훈의 본을 순종했습니다. 그 교훈 (교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1-4)

로마서 6장, 그리고 방금 살펴 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해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는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과 가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8,9)

Norman Starling:

율법은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는 “내가 죄인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한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우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의 죽음과 피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장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이야기 해 줍니다. 주님의 몸을 무덤에 어떻게 두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일요일 아침까지 어떻게 눕혀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 부활은 그가 죽음을 정복하고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는 어떻게 사탄과 죄와 무덤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벌어진 틈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9:1-2 말씀을 보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로 이제 죄인들이 단절되었던 그 틈을 연결한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재 연합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교훈의 본 곧 그들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본을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문자 그대로 죽어야 하고 문자 그대로 장사되어야 하고 문자 그대로 부활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까? 로마서 6:17을 다시 듣고 그들이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17,18)

여러분, 그들이 순종한 것은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은 그 교훈의 본(form)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훈과 같은 어떤 모형(패턴)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본이 무엇이며, 물세례도 거기 포함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3-5)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함과 죄 용서를 받는지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가 세례의 물과 함께 어우러짐을 봅니다. 또한 당시 로마에 살던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죄의 옛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이 죄인들도 세례라는 물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죄인들도 동일한 능력으로 세례를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하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와 세례의 물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거듭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17,18을 통해 이미 본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종이 되려면 죄인이 세례를 통해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라는 교훈의 본을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16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17에서는 복음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 진리이므로 다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7,8)

그러므로 복음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죄인이 자신을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문자 그대로 장사 지내고, 문자 그대로 부활하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죄인이 뭔가 이와 비슷한 본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혹은 물 안에 구원하는 무슨 힘이 있는가?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뭔가 마술적인 것이나 신비한 것이 물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 보더라도 물 그 자체만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서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또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시점을 말해 줍니다.

B. L. Clarke: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기록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21을 보면 세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타냅니다. 세례가 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NIV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번역)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을 해서 몸에 있는 때를 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다주며 사도행전 2:38을 보면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사도행전 22장16절에서는 죄를 씻어준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5)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 우리의 죄를 씻어줄까요? 그것은 믿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행할 때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는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자 했던 구약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무서운 병에서 벗어나고자 엘리사로부터 대단한 처방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요단강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단강 물 그 자체로는 예나 지금이나 나병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에 몸을 담그자 시리아 장군은 즉시로 온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병이 그때 비로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물 자체만으로는 죄의 나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때에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Alfred Washington: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3에서 모든 신령한(영적)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적 복 가운데 하나가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10)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3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이처럼 독특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세례 받기 전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유아는 어떨까요? 유아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 예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15,16)

위 두 구절을 통해 사람이 성경적인 세례를 받기 전 반드시 일어나야 할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 전하는 일과 믿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45)

가르침을 받는 것에 덧붙여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르침 받은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이는 복음을 믿는 자를 의미함)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듯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새 언약에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믿음 또한 요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에서 예수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사도행전 2:38)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전 과정에서 배웠듯이 회개란 우리 죄에 대해 그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건한 슬픔이 회개로 인도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기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린도후서 7:9,10)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변화를 뜻하는데 죄악의 삶에서 변화되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멈추고 예수의 발자취를 좇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생의 시작을 또한 요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그러므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32)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가르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며 그 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 그러니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곧 가르침을 받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옳고 필요한 것일까요?

Robby Liddell:

유아에게 세례 주는 것은 필요하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그 이해의 바탕 위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아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은 아직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3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것을 행하는 이유도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책임 있는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결정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B. L. Clarke: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단 한 가지 이유는 아기에게 죄가 있어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20을 보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16에서도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유아는 아직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4) 그러므로 유아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고 아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직접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질문이 될 텐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세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적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세례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결심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경에 따르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세례

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15,16)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죄책감과 죄 짐으로 힘드십니까? 당신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아직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당신의 마음에 아름다운 구속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당신에게 전해준 사람을 찾아가시거나 이것을 전해 준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 가족 곧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아 진리에 순종할 때 당신의 영혼이 정결해 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22-23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으로 당신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예수께서 당신을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느 보좌 앞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것이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까?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했던 답변이 이

과정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됩니까?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예수만 믿고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접기도문을 따라 해야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야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당신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물 뿌리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 붓는 세례입니까? 아니면 침수였습니까? 당신이 유아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세례는 침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죄인을 연합하게 하여 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세례를 받은 이유입니까?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세례 받기 전 구원받았다고 배웠다면 그 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했던 대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그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세례를 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받는 것 복음의 진리대로 받는 세례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바울은 거기서 세례는 받았지만 올바른 목적을 갖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 그들이 받은 세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세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처음 세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진리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침수로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죄 사함을 위해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받은 세례가 진리대로 행해진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본(패턴)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당신이 받은 세례가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곧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본대로 행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본(패턴)은 죄인에게 다음 다섯 가지 구원의 단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첫째, 복음을 듣

고 둘째, 복음을 믿고 셋째, 죄를 회개하고 넷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다섯째, 죄 사함을 위해 침수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단계를 따랐다는 확실한 신념이 들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진리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진리를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순종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순종했다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22)

깨끗한 영혼은 순전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7:21-23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으십시오. 찾으셨다면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하십시오. 세례를 받은 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부르십시오. 복음의 진리대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절대 게을리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날입니다.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순종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 창조주에 대한 진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한 권위에 응답하고 교회에 관한

진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집에 관한 진리에 응답하고 세례와 관한 진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진리를 아셨으니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이 진리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16)

INTRODUCTION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Some would consider this to be the end of life. But it isn't.

My name is John Moore, and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join with me as we examine the questions of life and death.

Did you know that on the average, 107 people die every minute and end up in a place like this? That is 153,000 people per day. That is a staggering number. It is hard to believe that many people are dying every day. But it happens.

Death comes to the very old, the very young, and everyone in between. As much as we might like to go on living, all of us will face death. But what happens to us when we die? Does life after death exist? If so, what kind of life? Does heaven exist? Does hell exist? And what will happen to you when you die? More important, will it matter what you have believed or how you have lived in this life? And will the answer to those questions affect your eternal destiny?

Most people believe that the majority of those who die will end up going to heaven. But listen to what Jesus says.

"Enter by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ere are many who go in by it. Because narrow is the gate and difficult is the way which leads to life, and there are few who find it." (Matthew 7:13,14)

Did you hear what Jesus said? He said that there are few who find life, and many who go into the path of destruction. Now, are you a part of the few? Or are you a part of the many? And are you certain about your eternal destiny? What is even more sobering is what Jesus said about those who believe in Him as the Savior.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ne many wonders in Your name?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Matthew 7:21-23)

Now, according to what Jesus said, many religious people will not enter into heaven. Merely calling upon the name of Jesus is clearly not enough to prepare a soul to enter into heaven. According to Matthew 7:21, Jesus said we must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order to go to heaven. Let me ask you a question. Have you done the will of the Father? If you were to die today and stand before Jesus, what would He say to you? Would He say, "Depart from me, for I never knew you"? Or would He welcome you into heaven? Are you absolutely certain about what He would say to you? Do you ever wonder whether or not you are saved? Do you have doubts and fears? Do you have questions?

Well, if you have ever had a question about life after death, and whether or not you are truly saved, you have probably wondered about your purpose in life. You may have asked the questions, "Why am I here?," and "Does God have a purpose for me?"

Since time began, human beings have been asking those questions. The philosopher, the theologian, the chemist, mothers and dads, carpenters, attorneys—all of them have asked those questions. Many of these people have been given all kinds of answers to these questions. Some of those answers even contradict each other. That can be very distressing and very confusing, especially when we consider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answers to those questions.

So what are the true answers to those questions? Which belief system is correct? And does it make a difference about what you believe and how

you live here upon this Earth? Wouldn't you like to be absolutely certain about that? Wouldn't you like to know the truth?

I want you to know that you do not have to go through life wondering. The greatest Man Who ever walked the face of the Earth brought us answers to those questions—answers that can set us free. Answers that can set us free from our doubts. Answers that can set us free from our fears and from our worries. Answers that can set us free as to whether or not we are saved. Those answers are to be found in the Word of God. And in that great book, Jesus tells us about truth, and how truth can set us free. Listen to the words of Jesus.

Then Jesus said to those Jews who believed Him,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My disciples indee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1,32)

Indeed, those are powerful words. As we contemplate the meaning of that passage, let's consider three things about truth. First, let's notice that Jesus implies in this passage that we can know truth. That is to say, truth exists! It is real. It is tangible. It is not just whatever you believe it to be or what someone else believes it to be. But truth is real!

There is an objectiv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nd for what is good and what is evil. You do not have to wonder about whether I am telling you the truth, or whether anyone else is. Truth certainly exists. And we can know what we need to do in order to get to heaven.

Second, not only can we know truth, but truth can set us free. It can set us free. It can set us free from being a slave to sin and from being in bondage to sin. Jesus said: "Whoever commits sin is a slave to sin" (John 8:34).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struggle with sin? Is it a heavy burden for you? Have you become a slave to money, to alcohol, or to other forms of drugs?

Are you a slave to pornography? What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Are you having difficulty in that relationship? Are you failing in your responsibilities as a parent?

Are you burdened with things like resentment, jealousy, or hatred? Do you have problems with racial prejudice?

Those things can weigh heavily on us. They can indeed be a great burden to us. And yet I want you to know there is hope. Indeed, truth can set us free from those restraints. Not only can truth set us free from unrighteous behavior, but it also can set us free from false religious practices and the traditions of men.

Like some in the first century who were being burdened by the false religious practices of the Pharisees mentioned in Mark 7:1–13 and Matthew 23:1–33, there are many people today who are burdened with various rites and ceremonies and religious practices that are nowhere mentioned in the Bible nor authorized by God. Those manmade traditions and ordinances can often become very weary and burdensome. More important, they can cause our worship to become vain.

In Matthew 15:9, Jesus, in speaking about the Pharisees' traditions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Bible, said, "In vain do you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Now what about you? Are you in bondage to the religious traditions and to the ordinances of men? Have you been shackled by the teachings and the commandments of men? Are you being asked to do things that God has never asked you to do? If so, I want you to know there is hope, because truth can set us free from this kind of bondage and this kind of restraint.

With knowledge of the truth, we do not have to live in uncertainty or fear. And whether it comes in the form of obvious sinful behaviors, or false religious practices, sin truly captivates. It enslaves. Yet Jesus and His Word can set us free.

Satan, the father of all lies and evil practices (John 8:44), does not have to be our master. With truth on our side, Jesus, the Sovereign Ruler of the Universe, can be our Master and our Lord.

Third, not only can we know truth, and not only does truth set us free, but we need to know that truth is to be found in Jesus.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While here upon the Earth, Jesus said that He and He alone is truth. If we are searching for truth, and if Jesus is the truth, then we should go to Jesus to find that truth. The Bible clearly teaches that truth is to be found in the person and in the words of Jesus. Listen again to what Jesus says about truth.

Then Jesus said to those Jews who believed Him,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My disciples indee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1,32)

It is the words of Jesus that can set us free. Those words are a precious commodity and, as in the words of an Old Testament writer, we should "buy the truth and sell it not" (Proverbs 23:23).

The truth, as revealed in the Bible, is so vitally important. By reading 1 Peter 1:22 we learn that truth can purify our souls. By reading 2 Thessalonians 1:7-9, we learn that we must obey truth if we are going to avoid eternal punishment.

Life is so uncertain. The bodies of the very old and the very young, and all ages in between, are in this cemetery. Some of those individuals died unexpectedly and without warning. I wonder how many of them died not knowing the truth?

None of us has the promise of even another second here upon this Earth. While some may live to 70, 80, 90, or even 100 years old, one thing is for certain: as long as the Earth still stands, people are going to die. What takes place then?

According to the Bible, we are going to be judged by what we have done here upon this Earth. In Romans 2:2 and in verse 16, the apostle Paul said that we are going to be judged according to the Gospel. In other words, we will be judged according to truth. All will be judged according to truth. That's right. We are going to be judged according to truth.

Now you might be thinking, "But I'm already saved, and I'm very sincere about what I believe, and my feelings are telling me that I've already discovered the truth." I hope that is the case. I hope you have discovered the truth. But sincerity is not enough to save you.

Before obeying the truth, the apostle Paul was himself a very religious individual and very sincere about his beliefs. Yet he came to realize that he had been the chief of sinners (1 Timothy 1:15).

In Acts 22, we read about the apostle Paul revealing that he had been zealous toward God, even though he had been killing Christians. Paul was sincere, but he was sincerely wrong.

What about you? Perhaps you have a great deal of zeal, but you have never really searched the Scriptures to see whether or not the things you believe are consistent with what the Bible teaches.

Do you really know the truth?

And are you absolutely certain about it?

I invite you to join me on this journey as we search for truth.

ABOUT THE CREATOR

NARRATOR: As we observe the universe, the earth and the amazing human body, it is easy to conclude that these things could not have occurred by accident. They are, in fact, the product of an intelligent creator. But, what kind of creator?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him? Does he really care about his creation? What is he like? Can we know him? More importantly, where can we go to find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Let's listen to John Moore as he leads us in a search for truth about the creator.

INTRODUCTION

JOHN MOORE: Life is a search for answers, and the true answers regarding our eternal destiny are the ones we value the most. In searching for those answers, I thought we could begin our journey in this beautiful place where God's creation is so highly visible. I really enjoy coming to places like this, getting away from the crowded highways and market places. Being here really reminds me of the powerful hand of God. And yet, in nature, can we encounter God? Is this where we come to find God? As we search for answers, search for truth; let us ask three important questions.

Number one, what can nature tells us about God?

Number two, how do we know the mind of God?

And, number three, what does the Bible tells us about God?

WHAT CAN NATURE TELL US ABOUT GOD?

Lets examine the first question, "what can nature tell us about God"? Over the centuries, Philosophers, scientist, and theologians have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a God. Their acknowledgement, in part, is based on the evidence of God in nature. William Paley, a theologian in the 18th century, became well known for his argument of the existence of God, based on nature.

"The works of nature want only to be contemplated. When contemplated, they have every thing in them which can astonish by their greatness: for,

of the vast scale of operation, through which our discoveries carry us, we see an intelligent Power. Every organized natural body, in the provisions which it contains for its sustentation (sustenance) and propagation, testifies a care, on the part of the Creator. We are on all sides surrounded by such bodies; examined in their parts, wonderfully curious; compared with one another, no less wonderfully diversified. There is no subject, of which, in its full extent, the latitude is so great, as that of natural history applied to the proof of an intelligent Creator.” – William Paley, *Natural Theology*.

It is true; God has revealed himself in nature. And, the Bible clearly teaches this as well. Listen to what the apostle Paul wrote as he acknowledged the evidence of God in nature.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Romans 1:20)

From this verse we learn that mankind has no excuse for not believing in God. God has clearly revealed himself in the world. As we examine the world, the universe, and even our own bodies, we can come to see that this is all evidence of a creator. But, let’s listen to what a scientist has to say about this.

Brad Harrub, PhD, Neurobiologist: “You can’t have a poem without a poet, or a house without a house builder. You can’t have design without an intelligent Designer. The complexity within a cell, the complexity of Earth’s atmospheric conditions, the distances between the planets—everything was put here for a purpose. If we look at the human nervous system, for example, we see that it is composed of billions of cells, and that it was purposely arranged to be able to conduct a nerve signal from one part of the body to the other. On a microscopic level, we see that a single cell has ion-gated channels, voltage-gated channels, and a membrane potential. It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do one thing—carry a nerve impulse from one cell to another. When you look deep inside the cell, you find the DNA—the biological code of life that allows the cell to perpetuate itself. Within the cell, you have an incredibly complex bio-chemical code, and yet we are expected to believe that it “just happened by chance”? Over and

over again, as you look throughout nature, you see what is almost like a 'neon arrow' pointing to a Creator, an intelligent Designer. That designer is God."

JOHN MOORE: Yes, God is crying out to us in nature saying, I am here, I exist. But, what does it reveal about him? It reveals that he is an intelligent, masterful, architect that is capable of sustaining this complex universe. It reveals that he is a creator of phenomenal organisms, and intricately designed complex systems; that he is powerful and that he is a force greater than anything we could imagine on our own.

However, as impressed as we may be by this marvelous creation, I cannot know the mind of God by simply looking at this tree, or observing nature in any form. I can't know whether or not God loves me. I can't know whether or not there is a hell. I can't know what to do to be saved by simply looking at the grass beneath my feet. How then do I know the mind of God? How can I know his will for me? And, how can I know what I must do in order to be saved? Well, let's answer that question.

HOW DO WE KNOW THE MIND OF GOD?

2. How can we know the mind of God? In the Bible, the apostle Paul addresses that very topic.

"For what man knows the things of a man except the spirit of the man which is in him? Even so, no one knows the things of God except the spirit of God.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ight know the things that have been freely given to us by God. These things we also speak, not in words which man's wisdom teaches, but which the Holy Spirit teaches." (1 Corinthians 2:11-13)

From this passage we can see, first of all, that man, on his own, has no way of knowing the mind of God. In other words, we can't just look within ourselves, or even at the natural world to know the mind of God.

Secondly, we learn that God made known his mind by a Spirit. The Spirit revealed to mankind what mankind on his own would never have known.

But, then, number 3 we learn that the mind of God was made possible by means of the Spirit's teaching. We come to know the mind of God, not through a feeling that we might have in our heart, but we come to know the mind of God through what the Spirit teaches in words. Those words are to be found here in the Bible. The bible is the mind of God made known by the Spirit of God. It is referred to as scripture. Let's see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origin and purpose of scripture.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ight be perfect,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The scripture came, Paul says, by inspiration, and in that passage the word inspiration literally means "God breathed."

CHUCK HORNER: When you go back to the Greek which is what the New Testament was originally written in, you find that the word is "theopneustos." It's a combined word. The first part meaning "God," the second part meaning "breathed." And so, what he's saying is that all scripture is actually breathed by God.

Keith Mosher Sr. D. Min.: In other words, as God breathed into the nostrils of man and he became a living soul, God breathed into the message we call the Bible a life. The Bible is living and active. So, we don't have a dead letter here, we have a living message that came directly from the mind of God.

"...knowing this first,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for prophecy never came by the will of man, but holy men of God spoke as they were moved by the Holy Spirit." (2 Peter 1:20-21)

Thus we can clearly see that the Bible is not the product of man, the Bible is the product of the Holy Spirit. It is the mind of God. And so, we can go to the Bible to learn the truth about God.

WHAT DOES THE BIBLE TELL US ABOUT GOD?

Let's answer, then this third major question. 3. What does the Bible tell us about God? To answer this question, let's examine a speech made by the apostle Paul, on a place called Mars Hill, located in Athens Greece. That speech is found in the 17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Now, as we begin, let's put that speech in its historical context.

After Paul was converted to Christ it wasn't long before he was spread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s he would travel the cities like Lystra, Philippi, and Thessalonica, he would spend his time telling others about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However, when he came to Athens he encountered a city that was completely given over to idolatry. The people of Athens were extremely religious. They were so religious and superstitious that they even erected an altar with an inscription that read, "TO THE UNKNOWN GOD." Perhaps they feared offending a deity unknown to them, and so they erected an altar to this god they didn't know about.

Paul also encountered various philosophers, and the educated elite of his day. This city was well known for its philosophers, and emphasis upon politics. Literature and learning. And yet, as Paul stood on Mars Hill, where religious and moral court proceedings were sometimes conducted, Paul expressed that the true creator of the universe was, indeed, very much interested in, and involved with the affairs of men. LET US HEAR WHAT Paul revealed about the god that they called "the unknown God."

"Men of Athens, I perceive that in all things you are very religious; for as I was passing through and considering the objects of your worship, I even found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THE UNKNOWN GOD. Therefore, the one whom you worship without knowing, Him I proclaim to you.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since He is Lord of heaven and

earth, does not dwell in temples made with hands, nor is He worshipped with men's hands, as though He needed anything, since he gives to all life, breath, and all things. And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 of men to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has determined their pre-appointed time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s." (Acts 17:22-26)

Now, as we answer the question, what does the Bible tell us about God, we can learn from Paul's speech, first of all, that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Indeed, God is the creator of everything. To think that this beautiful, and this highly complex universe, is the result or the product of mere happenstance, is unthinkable.

In Paul's day, the belief that God existed was a well known and established belief. And yet, as Paul pointed out, there is only one God that created all of this. Indeed, there is only one God. However, as Paul would argue later on in his speech, we must not ignorantly worship God. We must not be like those of Athens who worshipped God in a vain manner, and who worshipped God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their own conscience. Paul had revealed that God is the sovereign ruler of the universe, that he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so, since He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we must worship him according to His Will. We must not ignorantly worship God.

So you see, we have noticed that God is the creator of all. But now, second, let's notice in this Bible passage from Acts 17, in that God is in the reach of all. Listen as Paul continues with his speech.

"And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 of men to dwell on all of the face of the earth, and has determined their pre-appointed time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s, so that they should seek the Lord in the hope that they might grope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s also some of your own poets have said, 'For we are also his offspring' Therefore, since we are the offspring of God we ought not to think that the Divine nature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something shaped by art and man's devising." (Acts 17:26-29)

Those words from the apostle Paul are so very comforting because it reveals to us that God is involved in his creation, that he has set the bounds of man's habitation, that he has been involved in the affairs of men with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Even now,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us in life can serve a useful purpose, and that is all those things have happened that we might seek after God.

Now, when we find God we will realize that he is not like the gods of paganism. He is very different from those gods. The one true God is not made of gold or stone or fashioned after men's devices like the apostle Paul said. He does not dwell in temples made with hands. The one, true, living God, indeed, is Spirit. He possesses personality. The one, true, living God is concerned with the affairs of men.

B.J. CLARKE, Minister: He is one who cares about us, and provides for us. He provides for our need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He sends the rain on the just and unjust, and he sent his son to die for all who are unjust so that we might become his children. And, the opportunity to go and live with him for evermore in his house is beyond our ability to describe or comprehend. The term "Father" conjures up in our minds one of a loving family.

JOHN MOORE: In 1 John 4 and verse 8, the beloved apostle John said that "God is love." And, not only is he love, but, the Bible also reveals that God is our Father. He is a heavenly Father. And, as a Father, he long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s children; with those of his creation. And, indeed, God wants us to love him. Now, we desire to be loved as well. Each one of us desires to belong. Each one of us wants to have a relationship, and the God of the Bible can provide that.

Dr. Stephen Springer, LPC, University professor and counselor: Actually, man has been looking for something all through the ages. People have sought to belong. In fact, people at the Tower of Babel sought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and they were together for immoral purposes. We can also see that throughout other ages in history, people have sought this love they were missing. They sought it and they gave up on things that were right before them. The relationships that they had with their friends and family

were right before them, and they kept seeking after things that really were not right. The mental health profession is replete with resources for people to come to and look for this love. In fact, some people go to these counselor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day in and day out, and they will follow them around the country seeking something, seeking that answer. That answer becomes allusive to them because they seek it, and the answer was really right before them because God has provided this love. He has provided this opportunity for us to grow, and become stronger. But, we sometimes ignore it, and all we need to do is to realize is that he has provided this opportunity for us. He provided his only begotten son. He gave his only son that we might live, and we work on this relationship. And, though we can gain help from things we read and do, what we need to do is go back to the Bible, and read and study what God has given us, and then, it shows this great love he has and has given us. There is no need to seek any further for the answers are right before us.

JOHN MOORE: Yes, God does truly does love us. He cares deeply about us. He is fully aware of our sorrows and our heartaches. He is within the reach of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as the apostle Paul would also say, "It is in him that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very existence." In other words, it is in God that we find purpose in our existence.

Now, let's consider, not only, does God create everything, and not only is God within the reach of everyone, but God, number three, wants to give salvation to everyone.

"Truly, these times of ignorance God overlooked, but now commands all men everywhere to repent. Because he has appoint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the man whom he has ordained. He has given assurance of this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Acts 17:30-31)

As we have just heard, God will one day judge the world. And, because God will one day judge the world, he has made a way for everyone to be saved. Indeed, God wants everyone to be saved. And so, he has given us an equal opportunity to be saved by means of the resurrection of his son Jesus.

B.J. CLARKE – Minister: One thing that we need to understand is that God loves all sinners everywhere and every place no matter what they've done. Neither the magnitude nor the multitude of our sins is a barrier to our salvation because the chief of sinners, as he described himself, the apostle Paul, he received the grace of God. According to 1Corinthians 15, verse 8 he says,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the apostle Paul described himself as one who had done much injury to the Church, and Jesus gave him forgiveness.

GARLAND ELKINS – Minister & Bible Professor: Well, the Lord will forgive anyone who truly turns to him. In 2Peter 3:9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as some men count slackness, but is longsuffering to u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JOHN MOORE: So, you see, God isn't willing that anyone should perish. He wants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According to John 3, verse 16,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He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to die so that you and I don't have to suffer eternal punishment. Now, while he wants to save everyone, God expects something in return.

"Truly, these times of ignorance God overlooked, but now commands all men everywhere to repent." (Acts 17:30)

Did you hear what God expects? According to the apostle Paul, God expects everyone to repent. Listen, also, to what Jesus said i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Luke 13:3)

ALFRED WASHINGTON – Minister: The bottom line is that repentance is a change of heart, a change of mind. And, when one repents and changes their mind about sin, and turns to do what is commanded by God, that person has come to repentance.

KEITH MOSHER Sr., D. Min.: It's a mental decision that says that God told me to do this, if I don't do it I am sinning against God. And God sent his

son for me, and he loves me, and I am hurting him if I don't repent, so I'm going to change the way I'm thinking and I'm going to do whatever God tells me to do. That's why it's such a tough command because a man has to say, I'm not going my own way anymore, I'm going to do what God told me to do.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based on Godly sorrow.

JOHN MOORE: Now, repentance is expected of all men. It doesn't matter if we are rich or poor. It doesn't matter if we are educated or uneducated. It doesn't matter what country we were born in. It doesn't matter who our parents were, or what our children may one day become. God expects everyone to repent.

But, why is repentance necessary? Why does God call upon you and upon me to repent?

"Because he has appoint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Acts 17:31)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ach one may receive the things done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the Lord, we persuade men." (1 Corinthians 10:11)

Repentance is necessary, then, because God will one day judge the world. We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 things we have done upon this earth, or for the things we have failed to do. God expects us to repent. He expects us to turn from false ways, and false ideas. If we do not, we will suffer under the judgment of God. We will suffer his wrath and his terror.

Now, you might be asking, "If God wants to save everyone why would he punish those who will not repent?" The answer, in Revelation, chapter 15 and verse 3, and in Romans chapter 2, and verse 5, the Bible says that God is both just and righteous. As a just God, he must punish wrongdoing. As a righteous God he must discipline those who are rebellious. Consider, for example, if a judge in your community, refused to punish convicted criminals. Would you consider that judge to be just? Would you not, in fact, demand that that judge punish those who do not abide by the law? In

a similar way, God, the judge of all the earth,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abide by his law. And so, you see, God as a just God, does want everyone to be saved, but he will also punish those who do not repent.

Now, let's consider something else about the judgment as revealed by the apostle John.

"And I saw the dead, small and great, standing before God, and the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by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Revelation 20:12)

CURTIS GATES Ed. D – Minister & Bible Professor: We're all going to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In Romans 14:11–12, and 2Corinthians 5:10 says that we are going to be judged according to our works. My friends, this makes the judgment very serious.

JOHN MOORE: All of us will be at the judgment. Friend, that includes you. One day you will stand before God and give an account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upon this earth. Now, if you repent, that is if you turn to God, you can be saved. You can live eternally. We can be saved by the power of God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Now, in our search for truth, let's consider the three things we have learned.

We cannot know the mind of God by observing the creation. While the creation is certainly evidence that he exists, I can't know his mind by simply looking at the trees, for example.

Then, number two we learned that God has revealed himself to us through the Holy Spirit. He has made known his mind by means of the written word.

Then, number three we have learned that the Bible tells us that God is the creator of all and that he is within the reach of all, and he wants to save everyone.

CONCLUSION

Friend, God wants to save you. The great creator of this universe loves you, and he wants you to respond to his will.

So, will you respond to his will? In Paul's day, some rejected the truth about the creator. They did not repent of their sins once they were confronted with what was right.

But, what about you? What if, in our journey in our search for truth, you discover that what you have been taught or what you believe is inconsistent with what the Bible teaches, will you turn, will you change? Will you do things God's way? In our journey in our search for truth I hope you will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or not you are truly in the faith. Remember Jesus sai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John 8:32)

ABOUT AUTHORITY IN RELIGION

In today's religious world, there is a great deal of debate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en it comes to matters of faith, there are a number of differing viewpoints. But which one is correct? And who determines what is right? Is it the church, the Bible, a creed book, or a council of scholars? Who, or what, has authority in religious matters? In other words, who makes the rules? And where can we go to find the answers? Let's listen to our host, John Moore, as he leads us on our journey in searching for truth about authority in religion.

INTRODUCTION

Knowing what the rules are, and where to find them, are two things that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any endeavor. Here, on the field of athletic competition, an established rulebook, with an established authority, is an absolute "must." When teams meet to compete in some athletic arena, they do so, having agreed upon an established rulebook that has been authored and approved by some authoritative person or board. The principle of having an established set of rules or a set authority is a widely accepted principle, whether it has to do with sports, a civic organization, a school activity, a church, or a nation of people. Everyone understands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having a recognized authority or an established rulebook.

"In every organized sporting event, there must be a recognized authority and an established set of rules. Without a rulebook or an authoritative board or person, the games could never be played. Take, for example, the summer Olympic Games held every four years in various locations around the world. Those countries and their participants can, in a unified and uniform way, participate in those games because they have all agreed upon the necessity of there being one standard authority with one set of rules to be followed. For the Olympic Games, that standard authority and its rules are organized with the supreme authority at the top, known a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he Committee's job is to appoint from among its members a president and an executive board. The president and the board then enact codes and guidelines, and commission a director general to provide assistance with the writ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ules. Out of this process,

a rulebook is established. This rulebook then becomes the authoritative document for determining the boundaries, the rules of each game, and how those games will be judged. Without a chain of authority and a rulebook, the summer Olympic Games could never be played. Without a rulebook, there would be confusion and chaos. An agreed-upon standard of authority and a rulebook are an absolute 'must.'" Charles Smith – Referee

Now, let us turn our attention to something far more important than any sporting event. Let us turn our attention to the area of religion, and ask these questions. "Is there a single authority in religion?" "Is there a single, authoritative document or rulebook in religion?"

If, for example, in determining the rules for the church, how it is to be organized, or how it is to worship, one person consults a creed book, while another person turns to a decision made by a convention of delegates, and still another person basis his decision on what he "feels in his heart," each of these individuals will be unable to come to any kind of suitable agreement. They will not be able to play on the same "field." There will be certain division and disunity.

If unity and agreement are ever to occur—and the absolute truth about what to believe, how to live, and how to worship are to ever be realized—then we must begin by determining who has the right to make the rules and where those rules are written down. Knowing what our standard of authority is will affect our eternal destiny! The search for truth about authority in religion, then, is very crucial. Therefore, let us ask four major questions:

Number one, what is authority?

Number two, who or what is the authority in religion?

Number three, how is this authority made known?

And number four, is there more than one standard of authority today?

WHAT IS AUTHORITY

Let us begin our search by asking: "What is authority?" We have used the word "authority" several times up to this point, but what exactly does it

mean? It is defined as: "the right or power to enforce obedience." It means "moral or legal supremacy, and the right to command or give an ultimate decision."

An example of this definition is found in Matthew 8:9, where a Roman centurion (who had asked Jesus to heal his servant) said:

For I also am a man under authority, having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Matthew 8:9)

Authority, then, involves the right to command, and the power to make laws. In fact, the word "authority" has as its root word the word "author." It refers to the person who is the founder or inventor of something. Thus, the word "authority" convey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deas:

Number one, it means the right or power to command or give ultimate decisions.

Number two, it has reference to moral or legal supremacy.

And number three, the word "authority" has reference to the one who is the originator or founder of something.

But what about religious authority? As we continue our search for truth about our authority in religion, let us refer to our second major question: "Who or what is the authority in religion?"

WHO, OR WHAT, IS THE AUTHORITY IN RELIGION?

Who is it that has the right to command, and to make laws, in regard to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and how to worship? Who is it that has moral and legal supremacy in regard to these things?

"God is the source of primary authority. When Jesus was on trial before Pilate and He refused to answer a question, Pilate said, 'I have the right to put you to death.' Jesus said, 'You could have no power at all, except it had been given to you from above,' which simply means that God is source of all authority or power." James Medows – Minister

"In Acts 17:24, the Bible says that God has the ultimate Authority. He is the Lord of this Earth. He created this Earth. Mankind and all the animals

are subject to Him, to His decrees, and to His issuances. Psalm 95:6 indicates that this Earth belongs to Him. It is His house, and He is its Creator. Therefore, all who live in this world are subject to His commands and His decrees.” Ben Moseley O University Professor

Take, for example, a house built by your own hands—a house that you created and furnished with your own money, and a house where you, your wife, and your children live. Would you not have the right to establish the rules about what could, and could not, be done in the house or to the house? Would you not have the right to establish some rules and guidelines for those living in your house? Why certainly you would! And those living in your house would not have the right to change or alter the rules without your permission.

In a similar way, God sets the rules and the guidelines for each of us. He built this world. H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It is His house. It belongs to Him. It is not up to us to change the rules for living in that house. He is the Owner, He is the Builder, and He is the Sustainer of this great and wonderful creation. He therefore has the right to govern the affairs of men because He has all authority.

Now, let us go back to the Bible to see what else we can learn about the authority of God. In particular, let us see who else has authority over all of the creation.

God, who at various times and in various ways spoke in time past to the fathers by the prophets, has in these last day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Hebrews 1:1,2)

According to these verses, God today has chosen to govern and command His creation through His Son, Jesus. In verse two of this passage we learn that Jesus has been appointed “heir over all things.” As the only true Son of God, Jesus also has been given all things by God. This truth is further illustrated in John 3:35 where the Bible says this.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 Did you hear that? All things have been given into the hands of Jesus. One of those things has to do with the authority over all the creation. Listen now to this text.

Jesus spoke these words,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also may glorify You,

"as You have given Him authority over all flesh,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You have given Him. (John 17:1,2)

From this passage, and others that we have heard so far, we can learn that God is indeed the ultimate Source of authority. But He also has given authority to His Son Jesus. In fact, he has "given all things" into the hands of Jesus.

Christ is our authority in religion."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Christ said in Matthew 28:18." Curtis Cates – Minister and Bible Instructor

But let's see what specific things God has given "into the hands of Christ." What are the things that have been placed into the hands of Jesus?

And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which He work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at which is to come.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to b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Ephesians 1:19-23)

According to what we have just heard, Jesus indeed has all authority.

He has authority over all principalities.

He indeed is above every name.

All things are placed under His feet.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So clearly, Jesus does have all authority. This authority is something that He likewise claimed for Himself. Listen, now, to the words of Jesu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atthew 28:18)

Friends, how much authority does Jesus have? That's right—all of it. So, in answering the second major question regarding who is the authority in religion, we must emphatically say that God is the ultimate Source of authority, and that He has given this authority to His Son, Jesus.

"Christ is our authority in religion, as Matthew 28:18 shows. Christ said, 'All power (or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d said, in speaking of Jesus, that He is His beloved Son, and that men are to hear Him (Matthew 17:5)." Bobby Liddell – Minister and Bible Instructor

But now let us ask: How is this authority made known? In other words, how does Christ govern His creation? How does He enact upon that creation His laws? Let us return for just a moment to our discussion about sports. Let's say that you and I were going to participate in some athletic event. In order to do that, would we not need to know what the rules are? Absolutely we would! But just knowing who the authority figure is, or who the authoritative board is, would clearly not be enough. We would need some form of communication from that authoritative figure in order to know how we are to play the game—just like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when its members communicate the rules and regulations to the players, coaches, judges, and the various nations.

Likewise, in dealing with religious matters, knowing that God is the Authority is absolutely necessary. But that, in and of itself, is not sufficient. In running the race of life, we have to know what the rules are. We have to know what Jesus wants us to do. Remember what Jesus said in Matthew 7:21,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Thus, we must know what God's rules and commandments are—those rules that have been given by God to His Son Jesus.

But how does Jesus give us His commands? How does He exercise His authority? In other words, how does Jesus "move us" to do something He wants us to do? How does He communicate His will? Does He come to us in a dream? Does He fill our hearts with some important message?

To be sure, a long time ago God did communicate His will in some very special ways. For example, God spoke to Moses directly through a burning bush (Exodus 3:4). He also communicated through dreams, as in the case of Jacob (Genesis 31:11). At one time, during a feast sponsored by a Babylonian king, a detached human hand was used to write an important message upon a wall (Daniel 3). At another time, God allowed a donkey to speak to a prophet by the name of Balaam (Numbers 22:28). But is this

how God makes known His will today? Are these still the means by which He commands and directs us today? Let's listen again to what the Bible says.

God, who at various times and in various ways spoke in time past to the fathers by the prophets, has in these last day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Hebrews 1:1,2)

Yes, at one time God spoke in various ways and in different manners. But according to Hebrews 1:1–2, today He speaks to us through His Son. It is through His Son Jesus that we come to know the rules and the commandments of God.

While Jesus was upon the Earth, He gave those commandments and those rules by word of mouth—that is, through the spoken word. According to Mark 1:38, a part of the Lord's public ministry involved preaching and teaching. Jesus was indeed very compassionate. He was very concerned about people, and so He wanted them to know how to be happy and how to have a life filled with happiness. Thus, He taught them the words and the commandments of God. Christ's preaching was provocative. It was compassionate. But it also was authoritative.

The sermons He preached spoke directly to people, calling upon His listeners to turn from their ungodly behaviors and to abandon unauthorized religious practices. He gave specific commandments about how to live and how to avoid sin.

His powerful words were received with awe and amazement, as was revealed by Matthew in regard to Christ's Sermon on the Mount.

And so it was, when Jesus had ended these sayings, that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e taught them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Matthew 7:28,29)

Truly, the spoken words of Christ were authoritative. With His words, Jesus could calm a raging storm, cleanse a leper, or raise the dead. But notice also what Jesus says about the power and the necessity of His words in transforming the lives of sinners.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profits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John 6:63)

So you see, the words of Jesus are powerful. When He speaks, we can see that He has all authority. While upon the Earth, He commanded people to conform to His will. He did that by means of the spoken word. Through His preaching and teaching, He commanded people to conform to the ultimate authority of Heaven itself. Through the spoken words of Christ, He commanded people of that day.

But, what about today? If, while upon the Earth, Jesus exercised His authority by means of the spoken word, how does He exercise His authority today? Since Jesus is no longer with us in a bodily form, who or what is our authority?

In answering this question, let us hear what the New Testament writers taught about the origin and authorship of their own writings.

But I make known to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by me is not according to man. For I neither received it from man, nor was I taught it, but it came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Galatians 1:11,12)

Now listen to the apostle John as he was instructed by Jesus to write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and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as of a trumpet, saying,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and, "What you see, write in a book and send it to the seven churches which are in Asia: to Ephesus, to Smyrna, to Pergamos, to Thyatira, to Sardis, to Philadelphia, and to Laodicea." (Revelation 1:11,12)

John was told by Jesus to write down what he had seen. He and other writers of the New Testament wer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writing down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However,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en these men wrote the Bible, they did so under the direction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Knowing this first,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for prophecy never came by the will of man, but holy men of God spoke as they were moved by the Holy Spirit. (2 Peter 1:20,21)

These verses you have just heard, and others like them, are but a few of the many references which reveal that what was written in this Book are

not the words of men, but instead are the words and will of Jesus Christ as revealed by God's Holy Spirit.

"All prophets—all those who wrote the Bible—were led by the Holy Spirit. They were 'carried along' in their writings so that what you have here is God's breath, God's commands, and His rule for our lives." Chuck Horner
– Bible Instructor

In the Lord's absence, He has given us the written Word which governs our actions and guides our steps. The New Testament is the authoritative document of Christ that must be obeyed and that must be followed. It is, as revealed in the Bible, the law which belongs to Christ. It is, as Paul revealed in Galatians 6:16, the "rule" or "standard" of God which must be obeyed if we are to obtain the peace and mercy of God.

Let's return for just a moment to the analogy we spoke of concerning the Olympic Games. Notice again how the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s exercised, and ultimately manifested, in the Olympic rulebook. If an athlete or judge wants to know what can and cannot be done, then they will have to consult the rulebook if they are going to be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authoritative body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 religious matters, God (or the Godhead) is the Supreme Authority over all things. Jesus, as a part of the Godhead, has been gi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While on Earth, Jesus promised that the Holy Spirit would be sent in the name of Christ to direct the apostles in the writing of the Holy Scriptures. The Scriptures are, in fact, God's revelation to man—what we know today as "the Bible." This Bible has been given to us as a rulebook or guide, by which we are to live, and so we can know the rules of God, Who is our Supreme Authority.

In the Olympic Games, the official rulebook must be studied, consulted, and applied if someone is to legally participate in any event, and if they want to win the prize of a medal. Likewise, today we must study the Word of God. Both the church and the individual must consult that text and apply its principles if they want to live acceptably in God's sight. In a letter that the apostle Paul wrote to Timothy, he spoke about the rules of God and how to run the race in order to win the prize of heaven.

You therefore must endure hardship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No one engaged in warfare entangles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he may please him who enlisted him as a soldier. And also if anyone competes in athletics, he is not crowned unless he competes according to the rules. (2 Timothy 2:3-5)

Today, the Bible is where we find the rules for running the Christian race. It is the rulebook that we must follow if we want to go to heaven. If we reject the rules that are found within the Bible, and if we refuse to discipline ourselves in "running the race," then we can be disqualified. This is exactly what the apostle Paul was referring to when he said:

I discipline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 when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should become disqualified. (1 Corinthians 9:27)

The rulebook to be used in judging whether or not we will be disqualified is the New Testament of Jesus Christ. Listen now to Jesus.

He who rejects Me, and does not receive My words, has that which judges him--the word that I have spoken will judge him in the last day. (John 12:48)

According to Jesus, His Word—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will be that which judges each and every one of us at the end of the world. Yes, even today Jesus has all authority. And that authority is revealed in His written testament, which governs us even now.

So, in answering the third question, "How is this authority made known?," we obviously have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God reveals His authority through the written Word, the Bible. The Bible,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the source for determining what is right and wrong. The Bible reveals God's rules and guidelines for living the Christian life. It contains both His story of love and His commandments for life.

IS THERE MORE THAN ONE STANDARD OF AUTHORITY TODAY?

But let us ask these questions. Is the Bible the only rulebook we need? In the last portion of this session, let's ask: Is there more than one standard of authority today? Are there other religious groups that use as their

standard of authority something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New Testament?

"Some put more emphasis on the Bible than others do. Some put the emphasis on something in the past, something that has been written by men, something that has been said by men, or something that has been agreed upon by men. I have in my possession two books that would say much the same thing that we are talking about. This book is referred to as the Discipline of this particular religious body, and says, 'This Discipline is the book of law of this religious body. It is the product of many General Conferences of historical religious bodies, which now form this religion.' It goes on to say, 'This Discipline is the instrument for setting forth the mean by which this church is to be governed.' So yes, here is a book that is in addition to the Bible. So no, not all do use the Bible alone as their authority. Here is another. Really, this is more common than for everyone to regard the Bible as their sole authority. This book, titled Articles of Faith, says it this way. 'The Standard Works of the Church constitute the written authority of the church in doctrine.' Later on in the same paragraph it says, 'The works adopted by the vote of the church as authoritative guides and practice in faith and doctrine are four...'. The Articles of Faith then mentions four different books. The Bible is one of them, but only one of them. So, yes, a lot of religious groups have their own books, have their own rules, and have their own laws. Of course, the question that you have asked, and the question that is really appropriate is: 'Do we really need those other books?' And I have to answer the question, as much as I know about the Bible, no, we do not. We have exactly what we need in the Bible." Carl Garner – Bible Instructor

So yes, in answering our question, there are various religious groups and churches that use something other than the New Testament as their standard of authority. Creed books, other testaments, church manuals, church traditions, councils, conventions, confessions of faith, or disciplines are viewed by some as the rulebook or authority for their church. But do we really need these other standards or rulebooks? Can we go to the Bible—and the Bible alone—to know what we need to do to be complete before God? Can we, by reading just the Bible, know how to organize the church, what to teach, or how to worship? Can we, by a careful study of the Word of God, learn what it means to be a good husband, and good

wife, or a good parent? Can we, through the Word of God, learn how to cope with our problems and overcome our difficulties? Let's let the apostle Paul answer those questions.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So yes, the Scriptures can make us complete before God. Indeed, they must be used for doctrine (which means teaching), reproof, correction,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and instruction for every good work. Is it any wonder, then, that Peter would say about God that "His divine power has given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glory and virtue" (2 Peter 1:3)?

No, friend, we should not be at all surprised to know that the Bible is all-sufficient to guide our steps. After all, the Bible is the product of an all-knowing, all-loving God Who wants very much to save us and Who wants us to be happy!

But you might ask, "Hasn't the Spirit given 'additional revelations' since the time of the apostles? Isn't the Spirit revealing messages to us today, separate and apart from the Word?" Let's let Jesus answer that question about the Spirit (Whom He called "the Spirit of truth"):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ings that I said to you. (John 14:26)

However, when He, the Spirit of truth, ha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authority,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tell you things to come. (John 16:13)

In considering these passages, there are two very important truths to keep in mind:

Number one, the apostles would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in remembering the words of Christ.

And then, number two, the apostles would be taught "all things," remember "all things," and be guided into "all truth."

If the apostles were guided into all religious truth, should we expect to receive any additional revelations today? No, friend. All means all. It means everything. The Bible clearly teaches that all religious truth was revealed within the lifetimes of the apostles. "The faith," as Jude revealed, was "once for all delivered to the saints"(Jude3). The faith was not partially delivered in the first century, and then comple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or beyond. Instead, the faith "was once for all delivered." Indeed, all religious truth was revealed in the first century. So today, no other Gospel should be preached. Listen to what the apostle Paul said about this.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to you than what we have preached to you, let him be accursed. (Galatians 1:8) Friend, did you hear that? No other Gospel is to be preached. Paul said that even if an angel from heaven preaches something different than what those first-century Christians had received, it was to be rejected. Therefore, we must conclude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as it was revealed during the lifetimes of the apostles—is the standard of religious authority for us toda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Now that we have learned that God, through His Son Jesus, is the ultimate source of authority, and His Holy Word, the Bible, is the standard for religious authority today, let's spend just a few moments talking about the Bible and its two testaments. In our search for truth about authority in religion, you may have noticed that, in relationship to the Bible as a whole, we have been referring to the New Testament as our authority in religion. Consequently, you may have been asking, "Isn't the Old Testament important, and isn't the Old Testament is the Word of God?" Absolutely it is. The Old Testament is just as much a part of the Bible as is the New Testament. It is the Word of God. And it must be studied along with the New Testament. In fact, the apostle Paul said in Romans 15:4 that "whatsoever things were written beforetime" (meaning the Old Testament) were "written for our learning, that we through the patience and comfort of the Scriptures might have hope."

But let's notice something about the Old Testament. Why is that Testament called the Old Testament? And is that law that is written in that Testament a law that must be followed today?

"The Old Testament is called 'old' because Christians believe that the Hebrew Scriptures were fulfilled in the messianic life and ministry of Jesus Christ. In fact, Jesus tells us Himself in Matthew 5:17, 'Do not think that I came to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I did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So Christians today believe that we are under the New Covenant or the New Will. That would take us to Hebrews 8:13, where the writer talks about the New Covenant that God would make. In the context of Hebrews 8, he is referring to a prophecy made by Jeremiah in Jeremiah 31:31, where Jeremiah said,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Is the Old Testament the religious law that must be followed today?

"In Romans chapter 7 and in Romans chapter 8, the apostle Paul made it clear that there is a transi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We are no longer under (or answerable to) Old Testament law. Rather, Christians today are under the New Testament. In fact, all people today are answerable to the New Covenant or New Testament of Jesus Christ." Joseph Meador, Ph.D. – Bible Instructor

In summary, we can see that the Old Testament is called "old" because it is the law that no longer is in force. According to the Bible, that law was given to Israel. It was a temporary law. Its purpose was to prepare the way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New Covenant given by Christ Jesus.

Therefore the law was our tutor to bring us to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But after faith ha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a tutor. (Galatians 3:24,25)

Now as we have just heard, we are no longer under a tutor or schoolmaster. In the first century, a tutor was often a trusted slave or servant who had the job of caring for a child's moral and educational welfare. As part of his duty, he was responsible for leading the child to and from school, and he had the job of helping him grow into adulthood. Once the child became an adult, he no longer needed a tutor. He then was no longer under the authority of a tutor. In the context of the Galatian letter,

the Old Testament Law was referred to as the tutor or schoolmaster. That law was responsible for preparing mankind for adulthood. Its purpose was to point us to Christ and to the system of faith established by Christ. In Galatians 6:2 and in 1 Corinthians 9:21, that system is referred to as "the law of Christ." That law is the law that is spiritually binding upon us today. Thus, we are no longer under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That Old Testament was, and is, the tutor that points to Jesus.

But does this mean that we are not under the Ten Commandments as contained in the book of Exodus? Are we under those Commandments today? Strictly speaking we are not. Those Commandments were a part of the Law of Moses, and the Law of Moses was abolished. Listen to Ephesians 2:15.

Having abolished in His flesh the enmity, that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so 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from the two, thus making peace, (Ephesians 2:15)

The Ten Commandments, and that Levitical system of blood sacrifices, tabernacle worship, the burning of incense, and special feast days were all temporary in nature. According to Hebrews 10:1, those things were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The Law simply prepared the Israelites, and all humanity,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His New Covenant.

When Jesus came and brought the New Covenant, the Old Law was done away with. According to the book of Hebrews, that Law was vanishing away because it had been made "old" by the New Covenant of Christ.

In that He says, "A new covenant," He has made the first obsolete. Now what is becoming obsolete and growing old is ready to vanish away. (Hebrews 8:13)

Today, since the Old Testament is obsolete, and that Old Law has been abolished or done away with, is it acceptable to commit adultery? Is it OK to lie or to steal? Absolutely not! In no way is that the case. Nine of those ten commandments that people refer to as the Ten Commandments can be found in the New Covenant of Christ. The one exception is the commandment to keep the Sabbath. Again, that was a commandment given only to the Israelites (the Jews). Today, Christians under the Covenant of Christ keep the Supper of the Lord. That Supper was instituted by Jesus in Matthew 26:26-28, and was kept every first day of the week according to

Acts 20:7.Nine of those Ten Commandments are an integral part of New Covenant of Christ.

This New Testament, as contained in the Bible, is the New Covenant of Christ given by God's Holy Spirit to the apostles and which they have written down. As we read the Bible, we read in passages like Jeremiah 31 that those prophets foretold of the days in which the New Covenant of Christ would be established. Today, that Covenant has been established. The Old Law has been done away with. So, today, we live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by means of His written Word.

Now in summary, our search for truth has led us to discover:

1. The word "authority" means the right to rule or govern.
2. God is the ultimate Source of authority.
3. God has given Christ Jesu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4. The New Testament of Christ is the law by which all men should live today.
5. Christ makes known His authority, and reveals His will for us, by means of the written Word, the Bible.

That written Word is all-sufficient for guiding us to heaven. It explains the rules to us by which we are to live here upon this Earth. It is also, according to the apostle Peter and the apostle Paul, what we need to sustain us in our spiritual growth.

As newborn babes,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1 Peter 2:2)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Romans 10:17)

Friend, if you want to grow spiritually, then you must study this Book. If you want to know what the rules are for running the Christian race, then you must study the Word of God.

In this session, we have learned the truth about what our authority in religion is and Who it is. It is God. He has revealed His message and His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living the Christian life in the New Testament (in the New Covenant of Jesus Christ). That Covenant will

be the standard for judgment on the day that Christ returns, according to John 12:48.

Friend, I hope you will continue with me as we walk on this journey, searching for truth. This is the most important journey of your life. So please continue to join me as we search for truth.

ABOUT THE CHURCH

The word “church” is used well over 100 times in the New Testament. It is obviously a very important word, but what, exactly, does it mean?

Is the church merely a place of worship? Is it the sum of all the religious denominations? Or, is it something more personal and spiritual? Furthermore, how important is the church? And, does Jesus have a church to which we must belong in order to be saved? Let’s listen to John Moore as he leads us in our study on searching for truth about the church.

Is this what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a church? That’s what most people think of. Even the dictionary defines the word “church” as: “a building set apart or consecrated for public worship.” But is the church simply a building made of wood or stone? Or is there something more?

Indeed there is, for the church—the church built by Jesus Christ—was in existence long before this church building, any other church building, denomination, or Christian organization was in existence. What, then, is the church and what should our attitude be toward the church?

As we search through the Scriptures (the Word of God, our source for truth), let’s see what we can discover. As we do, let’s answer three very important questions.

Number one, what is the church?

Number two, is the church essential?

And then number three, must the church be unified?

As we begin, let’s turn our attention to our first question. The word “church” brings to mind many things for many people. The Greek word *ekklesia*, from which the word church is derived, has a very interesting history and an important application in the realm of the New Testament.

“In most people’s minds, the church is a building. The word translated ‘church’ in our English Testament comes from a word meaning ‘the called out,’ speaking of the people. One of the best definitions I know of ‘the church’ is found in Acts 8:1 and Acts 9:1. Paul is persecuting ‘the church’ (Acts 8:1). In Acts 9:1, it says that he is persecuting ‘the disciples of the

Lord.’ Therefore, ‘the church’ and ‘the disciples of the Lord’ are the same thing.” (Keith Mosher Sr., D. Min. – Bible Professor, Minister)

Indeed, with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church” takes on a very significant meaning with some well-established parameters. It is first mentioned i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here in chapter 16 of that great book we find the apostle Peter making an affirmation about Jesus as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An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And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Matthew 16:18,19)

In discovering the meaning of the word “church,” let’s notice first of all that Christ indeed has a church.

Number two, let’s notice that Jesus would be the builder of His church.

Number three, let’s notice that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would be given keys to the kingdom.

In regard to this third point, we need to know that keys are symbolic of authority. About one year after the Lord made the promise to build His church, we find that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took these keys of authority and opened the doors of the kingdom, thus establishing the church. This event took place on the same day as the Jewish celebration of Pentecost, as recorded by the inspired writer Luke in Acts 2.

In reading through this chapter, we find that the twelve apostles were given power from on high when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on them while they were waiting in a house in Jerusalem. Having no prior learning in some of these languages mentioned in verses 9–11, the apostles were nevertheless able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in various human languages to the individuals represented by these various ethnic groups and national entities.

This Gospel message consisted of a reference to Old Testament fulfillment about the Holy Spirit, a summary of the Lord’s credentials, a message abou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and therevelation about the exaltation of Jesus to David’s throne.

Upon hearing this sermon, sincere and conscience-pricked souls who were in need of salvation cried out in belief, asking,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Acts 2:37). Listen to what Peter told them to do to obtain the forgiveness (or remission) of their sins.

Then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to you and to your children, and to all who are a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Acts 2:38,39)

Here we find that after hearing the message of Peter and accepting that message, sinners who wanted to be saved were baptized. But what, then, did they become a part of? Those who were baptized—did they join a denomination? No, because none existed at that time. What happened?

And with many other words he testified and exhorted them, saying, "Be saved from this perverse generation." Then those who gladly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about three thousand souls were added to them. (Acts 2:40,41)

So continuing daily with one accor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they ate their food with gladness and simplicity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 church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Acts 2:46,47)

Did you hear what Luke said was happening there? He said those who were being baptized were being added to those who were being saved. And those who were being saved were being added to the church. They did not "join" the church. They were not added to a denomination because, of course, at that time none existed. Instead, as sinners were being baptized, they were being saved.

And at the same time, Christ was adding those saved people to others whom He had saved. Collectively, they made up what was known as "the church." To put it plainly, "the church" is the collectivity of all the saved, and "the saved" make up what is known as "the church." Throughout the book of Acts and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you will see that these saved individuals are identified in just this way—that is, as "the church."

As we continue to read throughout the entirety of the Bible, we also will discover that the word “church” is used to refer to these saved individuals in one of three ways. It is used in a local sense (as in “the church at Jerusalem”). It is used in a universal sense to refer to the saved all over the world (as in “Christ loved the church”). Or, it is used in a specific sense when the Bible speaks of the saved coming together in an assembly for worship. In all three cases, the word “church” refers to those who have been saved. These saved individuals are identified in Scripture with some very descriptive and meaningful terms.

These terms aid us in understanding the work and nature of these saved people—the church. For example, “the saved” are known as “the church,” because as the Greek word for church reveals, they are the “called out”—called out of the world of darkness, and into God’s spiritual light.

The saved are also called “the kingdom,” because when we think of a kingdom we typically think of a king and loyal citizens and servants within that kingdom. As saved individuals, Christians live under the kingship of Jesus.

They are under the rule and domain of Christ the King. In addition to being known as the kingdom, the saved are also known as “the temple.” In pagan cultures, temples are usually thought of as a dwelling place or house for a god. In the Bible we learn that the one true living God dwells within the church. His Holy Spirit takes up His abode within each Christian. But further, the saved also are known as “the household of God.”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household” often had reference to a family unit with a father, mother, sisters, and brothers. Likewise, the church should be thought of as a family—with God as our heavenly Father, Christ as our elder Brother, and the saved as our brothers and sisters. But still further, not only are the saved referred to as the household of God, but they also are called “the body.”

Just as the human body has a single head and various members, so the saved have as their head Christ Jesus, with the various parts of the body being individual Christians. Like a human body works in connection and relationships with all parts of the body showing unity and singularity, so the saved—the church—is a single body that reveals unity and singularity.

In fact, it is this last designation, the body, coupled with a reference from 1 Corinthians 11:27, that so clearly makes the point that the church is the saved—a people belonging to Christ. Listen now to what Paul says in the following two passages.

I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fill up in my flesh what is lacking in the afflictions of Christ,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Colossians 1:24)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members individually. (1 Corinthians 12:27)

Yes, friend, the body and the church are one and the same. And because this is true, the apostle Paul referred to Christians at Corinth as “the body of Christ.” Those Christians in the city of Corinth were known as “the church.” They were the church of Christ in that community.

So, in answering our question, “What is the church?,” we must conclude that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It is not a place for worship. Rather, the church is a people—a people belonging to God. To further illustrate the nature and essence of the church, let’s observe what the apostle Paul wrote to a young evangelist by the name of Timothy.

These things I write to you, though I hope to come to you shortly; but if I am delayed, I write so that you may know how you ought to conduct yourself in the house of Go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1 Timothy 3:14,15)

When Paul made reference in this passage to “the house of God,” was he speaking of a literal or physical house? No, of course not. He was speaking of a spiritual house—a house built by God that is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The church, as God’s house, was built upon the solid rock of the Lord’s deity. After Peter made his great confession that Jesus was the Christ, Jesus sai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ccording to Ephesians 2:20, Jesus is the Chief Cornerstone as well. And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are the foundation. In 1 Peter 2:5 we learn that Christians are the living stones which make up the spiritual house. Then, according to 1 Timothy 3:15, the church is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It upholds the Word of God.

It has the responsibility of going into all the world to preach the truth—the good news of Christ. Jesus Christ is also the door into this house. He is the door, and the means by which men must enter in order to have eternal life. Leading up to that door are the steps of salvation, which each sinner must climb in order to enter the church. This, then, is the basic structure and framework of the church.

It is the collectivity of Christians built upon Jesus, the Chief Cornerstone, and His holy apostles, the foundation. So again,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the saved. It is the body of baptized believers. It is the body of Christ. It is the kingdom of God. It is the house of God. And it is the temple of God. Now that we have determined what the church is, let’s ask our second major question: “Is this church essential and important?” Occasionally I hear some people say, “Give me Jesus, but not the church,” or “Give me the Man, but not the plan.” I’ve also heard some people say you don’t really have to be a member of the church in order to go to heaven. But is this really true?

In a letter written to the church at Ephesus, the apostle Paul wrote and stressed the essential nature and value of the church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to God.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both one, and has broken down the middle wall of separation, having abolished in His flesh the enmity, that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so 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from the two, thus making peace, and that He might reconcile them both to God in one body through the cross, thereby putting to death the enmity. (Ephesians 2:14–16)

From this passage we not only learn that there was once a division between Jew and Gentile, but we also learn that a division once existed between God and man. According to passages like Isaiah 59:1–2 and Romans 6:23, sin separated a person from God.

It is sin that makes us an enemy of God. But the Bible also teaches that because of the love of God—because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Hi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we learn that we can be a friend of God again. We learn that we can be reconciled to God.

For if when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now received the reconciliation. (Romans 5:10,11)

The term “reconcile” or “reconciliation” refers to separate parties or factions being brought back together, being made one. From Ephesians 2:16 we learn that the division between God and man that exists because of sin can be made one (that is, they can be reconciled) in the one body of Christ. Earlier in chapter 1, the apostle Paul referred to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when he said God made Jesus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Christ’s church” and “the body” are one and the same.

So if we want to be saved, and if we want to be reconciled to God, then we must be “in the body”—which, of course, is the same thing as saying we must be “in the church.” So, yes, the church is important. It is essential.

If we want to be saved and be reconciled to God, we must be in that body—the body of Christ. But now, let’s go farther into the book of Ephesians and discover some additional reasons as to why the church is so valuable and so important.

To me, who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the saints, this grace was given, that I should preach among the Gentiles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and to make all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ages has been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intent that now the manifold wisdom of God might be made known by the church 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in the heavenly places,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He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Ephesians 3:8-11)

From this passage we learn two very important points. First of all, let’s observe that the church is the manifold wisdom of God. That is to say, it is a reflection, or an example, of God’s wisdom. From its unique organization to its unique form of worship, the church is the greatest institution to ever have been established. An example of how great this institution is can be seen in its cross-cultural and cross-national fellowship. This unique fellowship can be better understood against the backdrop of what we read earlier about a division existing between Jew and Gentile. In

Ephesians 2:14 Paul alluded to this division when he spoke of “a wall of separation.” (Alfred Washington)

“The wall that Paul mentioned in Ephesians 2:14 was, in one sense, a literal wall. We find that this wall had been erected within the Herodian temple complex. It was designed to prevent the Gentiles from entering into the temple sanctuary and its inner courts. What we must recognize is that the Gentiles were not offered, and had not been extended, true fellowship with the Jews as a result of this barrier. Not only that, but it was symbolic of the fact that the Gentiles had not been given equal access to God and to His spiritual blessings and promises under the Old Law.”

The eradication of that division had been prophesied by two Old Testament prophets by the name of Isaiah and Daniel. Both had prophesied about God’s plan to eradicate that wall and remedy the division between Jew and Gentile by means of Christ’s death upon the cross, and through God’s kingdom, the church.

“Paul, in Ephesians 2, conveyed the idea that through 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this ‘middle wall’ had been removed. Now, both Jews and Gentiles have equal access to the spiritual blessings and promises of God. Regardless of nationality, social class, political affiliation, education level, or gender, we can all have access to God through the body of Christ, which is His church.”)Alfred Washington)

The church, then, is an all-inclusive body of people that transcends or rises above both nationality and ethnicity. The church, as God’s kingdom, include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Or, as Isaiah put it, “All nations would flow into it” (Isaiah 2:2).

Today when a person, through faith in Jesus, is baptized into Christ, he or she is thereby clothed with Christ, and becomes a part of a family where divisive lines of nationality or social status are eliminated.

For as many of you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27,28)

Yes, the church is a shining example of how God brings people together. Through baptism into Christ, people of all nations become one. They become a part of a brotherhood devoid of economic status or political

standing. As a family, the church exhibits a mutual care and concern for its members. According to the Bible, it is a place where there is a single heart and a generous spirit of love.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been abandoned or mistreated by their earthly families, the church is a haven of happiness and good will, with many brothers, sisters, fathers, and mothers to help foster and care for its spiritual children. Indeed, the church reflects the wisdom of God, and we give thanks for it!

But in addition to it reflecting the wisdom of God, let's notice from Ephesians 3:11 that the church is essential because it is within the eternal purpose of God.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was according to God's eternal plan. It was in His mind long before the world ever began. The church was not, as some have wrongly contended today, an "afterthought" or "last-minute decision" made by the Lord when He was allegedly unable to establish His kingdom. The church and God's kingdom, as we learned earlier, are one and the same. This kingdom had been planned by Deity. It had been prophesied by the prophets, predicted by Jesus, and established by God. All this was according to a marvelous plan that saw its fulfillment in the first century, and that is still being realized today.

This kingdom, as revealed in the Bible, was in existence during the first century. In passages like Colossians 1:13; 2 Thessalonians 1:5, and Revelation 1:9, we read that Bible writers spoke of the kingdom being in existence during their lifetimes. According to the prophet Daniel, we find that that kingdom was to come into existence during the Roman Empire.

And in the days of the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Daniel 2:44)

From the context of this passage, we learn that the phrase "in the days of these kings" refers to the Roman Empire. Daniel had prophesied that four successive world empires would control the region of Palestine.

It was during the fourth empire—which history records as the Roman Empire with its emperors or kings—that the church of Christ ("the kingdom of God") was established.

But now let us go even farther into the book of Ephesians to learn one more thing about the essential nature and value of God's church. There are many beautiful truths revealed in this passage.

But in light of our question abou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church, let's notice that Jesus loves the church and He is the Savior of the body.

Friend, if Christ, our great Example, loved the church, shouldn't we love the church as well? Absolutel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ves!

So I ask you: Do you love the church of Jesus as Christ loved the church? Since Christ loved the church enough to shed His blood for it, and to die on its behalf, shouldn't we therefore want to be a part of it? Indeed, as 2 Timothy 2:10 says, salvation is "in Christ."

And since "the body of Christ" is the same thing as "the church of Christ," would we not therefore need to be in the church in order to be saved? Certainly we would. We must be in the body of Christ to be saved. Thus, friend, we can see clearly that the church is not only important and valuable, but it is also absolutely necessary and essential.

But now let's notice one final point in the book of Ephesians about the church. And as we do, this will bring us to our last and final question.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Ephesians 4:4)

After hearing what Paul said, we must conclude that just as there is only one God, one Spirit, and one faith, there is also only one body. Since the church and the body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s revealed in Ephesians 1:22-23),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re is therefore only one church. Listen now to what Jesus says about this one church.

An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Matthew 16:18)

Friend, did Jesus say He would build churches (plural), or did He say He would build His church (singular)? That's right. He said He would build His church (singular).

Yet today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hurches in existence. These churches teach differing ideas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They have different

ideas and beliefs about moral issues and about how to organize the church and how to worship. If you were to examine, for example, a directory of churches in your country, you would soon come to realize that there are so many divergent names and types of churches.

Among those who are claiming to be Christians, you also would recognize that many of these churches are divided. Do you think that this is pleasing to God? Is it acceptable to have so many churches? What about the church Jesus promised to build? Should this kind of division be tolerated? Is it acceptable to divide the "one body" of Christ by creating and establishing manmade churches or denominations?

Should Christians within the one body of Christ separate themselves from other Christians within that body by wearing a different name or a peculiar name, or by adopting doctrines that are not found in the Bible, and adopting creed books, ideas, and philosophies that are nowhere mentioned in the Bible? Let's answer those questions.

And in particular let's ask, number three, must the church be united? In today's world there is a great deal of division among those who profess to follow Jesus. The acceptance and toleration of this division is often rationalized on the basis of a concept known as "denominationalism." But what, exactly, is denominationalism?

"The word 'denominationalism' simply means to name something. When you separate yourself into any group, you actually 'denominate.' If you were to ask someone what kind of Christian he is, he might tell you, 'I'm this particular kind of Christian.' He is denominating what he is. What happened here is that denominationalism split Christianity into so many bodies that it's nearly impossible to name all of them. Someone has estimated over 600 in this country alone that claim to be 'Christians,' yet name themselves differently because they are following different creeds, different doctrines, or different dogmas. To denominate is to split or break up the church that Jesus died for and paid for with His own blood (Acts 20:28)." (Keith Mosher Sr., D. Min. – Bible Professor, Minister)

So denominationalism promotes the ideas of division and sectarianism. Interestingly, this concept or idea is not even mentioned in the Bible. In fact, the idea of dividing over a manmade doctrine or the notoriety of men

is absolutely forbidden. It is condemned. Consider, for example, what was happening at the church at Corinth.

In Acts 18 Luke tells us that while Paul was on one of his missionary journeys, he helped to establish the church in the city of Corinth. From Corinth he eventually made his way over to Asia Minor, where he worked in establishing the church at Ephesus. While in Ephesus, Paul received word that there were some problems occurring in the body of Christ at Corinth. One of the problems had to do with a division among its members over a preference for preachers.

For it has been declared to me concerning you, my brethren, by those of Chloe's household, that there are contentions among you. Now I say this, that each of you says, "I am of Paul," or "I am of Apollos," or "I am of Cephas," or "I am of Christ." (1 Corinthians 1:11,12)

When Paul had heard of these problems, he wrote (by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the book of First Corinthians. In that letter, he condemned the practice of division.

Now I plead with you, brethren,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ou all speak the same thing,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perfectly joined together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1 Corinthians 1:10)

Sadly, some in the church at Corinth began dividing over a preference for preachers. After being baptized, some were saying, "I am of Paul," or "I am of Cephas," or "I am of Christ." Yet Paul wrote and denounced this sinful division by asking three very important questions.

Is Christ divided? Was Paul crucified for you? Or were you baptized in the name of Paul? (1 Corinthians 1:13)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obvious. First, no, Christ is not divided. In Mark 3:22-26 Jesus stressed the unified nature of His essence. Then, number two, the answer is "no" again. Paul was not crucified for them. And number three, they were not baptized in the name of Paul. Instead, according to Matthew 28:19, sinners are baptized in the name of Christ.

Based on these criteria, would it have been wrong for Christians to call themselves "Paulinites?" Would it have been a sin to name the church after

Paul? Yes, it would have been wrong. And yes, it would have been a sin against God.

What if today in the church there was a well-known preacher by the name of Alex Campbell, who was himself a powerful and dynamic proclaimer of the Word of God? Let's say that he was a well-educated Bible scholar who was responsible for converting thousands upon thousands to Christ. If we, in seeking to honor him, began wearing the religious name, "Campbellite," do you think this would bring glory to God? Do you think it would be acceptable to God? Not according to 1 Corinthians 1! Rather, in order to call ourselves "Campbellites," three things would have to be true.

Number one, Christ would have to be divided. Number two, you would have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Alex Campbell." And number three, Alex Campbell would have to be crucified for you.

Thus, in calling yourself a Campbellite, you would be dividing the body of Christ, and would end up bringing glory to Alex Campbell instead of bringing glory to Christ. In 1 Corinthians 1:31 Paul said, "If anyone glories, let him glory in the Lord." Peter said: "If anyone suffers as a Christian, let him not be ashamed, but let him glorify God in this behalf" (that is, in the name "Christian").

Friend, if it is wrong to divide the body of Christ over a preference for preachers, would it not be wrong to divide the body of Christ over creeds or manmade doctrines? Would it not be wrong to divide the body of Christ by the wearing of unauthorized religious names, either for ourselves or for the congregation?

"This church may not teach the same thing as another church, but according to denominationalism, they are both 'the church of Christ.' Scripture teaches us, however, that there is one body, one church, and that that church teaches the same thing uniformly. That is really what we need to strive to do today—speak 'as the oracles of God,' and not differentiate or denominate ourselves into a number of different groups, all claiming to be from the one body." (B.J. Clarke – Minister)

Friend, the unity of the church is emphasized again and again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We, therefore, must not be guilty of dividing the body of Christ! Listen now to Jesus as He prayed for the unity of all believers.

I do not pray for these alone, but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word; "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John 17:20,21)

Now listen to the apostle Paul as he instructed the church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I, therefore, the prisoner of the Lord, beseech you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with which you were called, with all lowliness and gentleness, with longsuffering,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endeavo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Ephesians 4:1-6)

Now let's notice that not only does God demand unity, but also that division and sectarianism are condemned. Notice in the following passage that division is classified as a work of the flesh that must not be practiced or tolerated.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lewdness, idolatry, sorcery, hatred, contentions, jealousies, outbursts of wrath, selfish ambitions, dissensions, heresies, envy, murders, drunkenness, revelries, and the like; of which I tell you beforehand, just as I also told you in time past,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Galatians 5:19-21)

Yes, division is condemned. And as you heard a moment ago from passages like Ephesians 4 and 1 Corinthians 1, we must endeavor to maintain the unity found in the body of Christ. We must speak the same things. We must be perfectly joined together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But in order for that to happen, each of us must be willing to give up those things that are not found in the Bible. We are going to have to give up unauthorized religious practices or the wearing of names that are not found in the Bible. We are going to have to return to the Bible for a "thus saith the Lord" for all that we do and say.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To do some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is to do it with His permission and His approval. So are you seeking the Lord’s approval? Are you in His church? Are you wearing a religious name that brings glory to Christ? Are you living and worshiping in a way that is authorized by (and thus acceptable to) Christ?

Friend, are you striving to promote unity in the body of Christ by going to the Bible and doing things according to God’s will and God’s way? It would be absolutely wonderful if sincere truth seekers everywhere stopped wearing manmade religious names, gave up their creed books, “confessions of faith,” and all unbiblical practices—and became just a member of the church of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Friend, not only would this be wonderful, but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make this possible. So, in answering our third major question, “Must the church be unified,” we have to answer with a resounding “YES!”

Just as we have learned in this lesson tha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who are the saved, and that the church is important, essential, and necessary, we also have learned that the church must be unified.

These three points are fundamental to The Faith. Indeed, they are a part of the blessed Gospel of Christ.

They are a part of the Truth (the Word of God)—the truth which can set us free from the shackles of false religious practices and manmade churches.

Indeed, friend, my hope is that you will accept and obey this truth regarding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church that Jesus built.

Remember, the truth, and only the truth, can set you free. I pray that you will obey the truth and become just a Christian. Become a part of God’s family—the church.

ABOUT THE HOUSE OF GOD

Most people in the world live in some kind of house or dwelling. Those houses come in all shapes and sizes—with different floor plans and layouts, and furnished in many different ways. Yet each home is precious and unique to its owner.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ether or not God owns a house? And if He does, how could we recognize that house if we were to go in search of it today?

Let's listen to John Moore as he leads us in searching for truth about the house of God.

INTRODUCTION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he apostle Paul wrote to a young evangelist by the name of Timothy, and said the following:

These things I write to you, though I hope to come to you shortly; but if I am delayed, I write so that you may know how you ought to conduct yourself in the house of Go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1 Timothy 3:14,15)

From this passage, we learn that God has a house. He has a dwelling place. That house is known as "the church." And, as we learned in a previous session, the church is "the saved of Christ." And the church also is identified in Scripture as the kingdom, the body, the temple of God, and, as we have just seen, the house of God.

Now this building is not the church. It's simply a place where the church comes to worship and to study. According to 1 Corinthians 3:16, the church (which is the people) is very important. The church is God's temple. And God's temple, whether it is here or anywhere else in the world, is very unique. That temple, that house, has a very unique Architect and a unique Builder. It had, and still has today, a very unique organization and purpose. It has some very important and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nd traits. So let's go in search of that house.

Let's discover for ourselves those traits and characteristics. And as we do, let's ask three very important questions.

Number one, who built the house of God?

Number two, what are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n, number three, let's ask: Can we establish the house of God today?

Let's begin by answering that first question: "Who built the house of God?"

WHO BUILT THE HOUSE OF GO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shouldn't take us very long to figure out. In fact, I'm sure you already know. But let's listen again to the words of Jesus to discover for ourselves what God would have us to know about His church, His house. When Jesus came in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saying,

"Who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So they said, "Some say John the Baptist, some Elijah, and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Simon Peter answered and sai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for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An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Matthew 16:13-18)

In the last portion of this passage, we can see clearly that Jesus is the Builder of His church. We might also notice—in the statement Jesus makes, "I will build My church"—that the possessive pronoun "My" clearly points to Jesus. He is therefore both the Builder and the Owner of His church. But now listen to the Hebrews writer as he tells us more about the house of God and who is in charge of that house.

Therefore, holy brethren, partakers of the heavenly calling, consider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Christ Jesus, who was faithful to Him who appointed Him, as Moses also was faithful in all His house. For this One has been counted worthy of more glory than Moses, inasmuch as He who built the house has more honor than the house.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He who built all things is God. And Moses indeed was faithful in all His house as a servant, for a testimony of those things which would be spoken afterward, but Christ as a Son over His own house,

whose house we are if we hold fast the confidence and the rejoicing of the hope firm to the end. (Hebrews 3:1-6)

In considering this passage and lessons learned earlier about the church, we can conclude that, number one, Christ, as the Son of God, has built a house. Number two, Christians (the saved) are the house. And number three, Jesus is over His house.

So, yes, it is true that Christ is the Builder and thus the Owner of His house, the church. And He is over His church. But what, in Hebrews 3, does the phrase "over His house" have reference to?

"It is showing the superiority of the church age over the old Mosaic Age. Back at that time, Moses, as a servant (and that's a key concept), was the head of that house. But Jesus is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He is the Heir and Ruler over the house, the church.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consist.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ho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all things He may have the preeminence. (Colossians 1:17,18)

Notice that this passage says that Jesus has this authority. Nobody else. There is no man, no body of men, and no council that has this authority. It's plain and simple." (Chuck Horner – Minister and Teacher)

Indeed, Christ is over His house. But how much authority does He have over this house? So how much authority does Jesus have?

And Jesus came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atthew 28:18)

That's right. He has all of it. That doesn't leave room for anyone else. All means all. So, if I want to know something about the house of God, then I must go to Jesus because He is the Builder and Owner of His church.

Now, friend, let me ask you a question. Since Jesus is the Builder, Owner, and Head of His house, do you or I have the right to make modifications and/or additions to that house? Can we just take it upon ourselves to make changes to, or remodel, the house that Jesus has already built?

Let's say that you wanted to build a house in which to live. And let's also say that you possessed enough money to acquire land for the building of that house, and the materials so you could build it with your own hands.

Then let's say that you hired workers to aid you in constructing your house. You then commissioned them to build it according to your specifications—with exactly the amount of rooms requested and with precisely the amount of floor space required. Then let's say that after the house was completed, you invited some friends or relatives to stay in your house. Would those friends of yours have the right to modify your home according to their liking? Could they begin to make changes in your house without your authorization? Let's say that one day you discovered that one of your friends had done that very thing, and had taken it upon himself or herself to begin remodeling your house by adding a wall here or a door there. How would you feel about it? Would that be acceptable? Absolutely not! Why not? Because that house belongs to you! You built that house with your own hands. You gave the money for it to be built. You therefore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termine the design and layout of that house, and also how it will be maintained.

In a similar way, Christ, as the Builder of His house (the church), purchased the church (the people) with His own blood. He then commissioned the apostles to lay the foundation of the house and then to construct it thereupon according to some very specific divine requirements as revealed by the Holy Spirit. As residents of that house who are living in a house built and owned by Jesus, do we have the right to change or modify that house according to our liking? Do we have the right, according to our own opinions, to modify or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of that house, or to put a different name on that house? Absolutely not. As residents, we must leave the house exactly as we found it. We must live in the house according the divine principles revealed in the Word of God.

So in answering our first major question about who built the house of God, we can clearly see that Jesus built the house of God. As its Builder, He is its Owner, and therefore has all authority over that house.

WHAT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 OF GOD?

But now let's ask our second major question about God's house. Let's ask: What are 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as we examine the Bible, what will we discover abou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at house? How is it organized? How do its members worship? What doctrine is

taught in God's house? And what name (or names) is (are) used in identifying God's house?

Every religious group (or "religious house")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identify it or distinguish it from other religious groups. Just like your house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houses by its unique characteristics, the Lord's house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would-be houses by its unique characteristics. So, as we go in search of the Lord's house, let's find out what it looks like.

Let us go on a search for the house of God. As we do, let's ask ourselves: Does the house that we live in (the religious house) look like the house of God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Let's consider some of those characteristics.

Christ the Foundation

First, just like a house that you or I might live in today has a foundation, the Lord's house has a foundation as well.

For no other foundation can anyone lay than that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1 Corinthians 3:11)

So the house of God, then, should be founded upon Jesus Christ. It must not be based on the notoriety of men or on some human doctrine, human creed, or an academic institution. Nor should it be founded upon what may or may not be culturally acceptable or politically correct. Instead, the church of Jesus Christ must be founded upon Jesus Himself Who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So, friend, I ask you: Does the church where you attend claim to be founded upon Jesus?

Christ the Builder

Second, let's notice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Lord's house. As we learned earlier, the Lord's house has a Builder.

An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Matthew 16:18)

Who, then, is the builder of the church you attend? Do you belong to the church built and established by Jesus?

Christ the Name

Another identifying characteristic of the Lord's house is its name. Many times in Scripture it was referred to as the church of God, as in Acts 20:28, 1 Corinthians 1:2, Galatians 1:13, and 1 Timothy 3:5. But because Christ is God, it was also referred to as the church of Christ, as in Romans 16:16 where Paul said, "The churches of Christ salute you." In naming the church after Christ, we bring glory to the One Who bought the church.

For example, in Acts 20:28 the apostle Paul said that Christ, as God, purchased the church "with His own blood." Consider, for example, if you were buying a piece of real estate. And you purchased that land with your own money. Whose name should be on the deed? Suppose that you were providing all the funds necessary for the purchase of that property. Whose name would you want on the title of ownership or deed? Why, yours, of course! You bought it, and you own it. Therefore, your name ought to be on the deed.

In the very same way, because Christ purchased the church, don't you believe that His name should be on the title of ownership? Indeed it should! It belongs to Christ. And it therefore ought to bear His name, not the name of some other man. Consider also that in the New Testament the church is often alluded to as "the bride of Christ." Now what husband (including Christ as the church's Bridegroom) would want his bride to wear the name of some other man? Indeed, shouldn't the church of Christ wear the name of Christ? In New Testament times, that's exactly what they did. The church wore the name of Christ.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The churches of Christ greet you. (Romans 16:16)

So, friend, does the house where you attend wear the name of Christ?

Christ the Organizer

Another characteristic of both a house and a church is its organization. Consider, for example, the Lord's house, and how it has an organization. In Colossians 1:18 we read that Christ is the head over the church—that is, the church universal. But the Bible also tells us about the word "church"

being used in a local sense, like “the church at Philippi,” “the church at Ephesus,” or the “church at Corinth.”

When these churches were established, it wasn’t long before godly men were appointed as elders to be the leadership, and indeed to be those who were to shepherd and guide each of those local bodies or congregations of God’s people. When we talk about the scriptural organization of the church of Christ, first of all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hurches of Christ (Romans 16:16) are local congregations. Those members of a local congregations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universal, over which He is the Head, and over which He is the Supreme Authority. He has also given instructions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each local church. There are to be men who oversee that local work who are called elders.” Bobby Liddell (Minister, Bible Professor)

So when they had appointed elders in every church, and prayed with fasting, they commend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Acts 14:23)

The term “elder” refers to a man who, along with other elders in any given congregation, was responsible for shepherding a single congregational flock. These men were referred to in the Greek New Testament by three different Greek words. Each of these words is used interchangeably, and can be found 1Peter5:1andActs20:17,28.

Notice the first term, presbuteros, which is translated by the word elder or presbyter. The second term is episkopos, which often is translated by the word bishop or overseer. And then there is the Greek work poimen, which is translated by the word pastor or shepherd. All of these terms refer to the same individuals, who had met the qualifications as outlined in 1 Timothy 3:1–7 and Titus 1:7–9. In those passages, we learn that an elder had to meet certain qualifications.

A bishop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temperate, sober-minded, of good behavior, hospitable, able to teach; not given to wine, not violent, not greedy for money, but gentle, not quarrelsome, not covetous; one who rules his own house well, having his children in submission with all reverence. (1 Timothy 3:2–4)

Not only did these men have to meet certain qualifications, but we also learn from reading the New Testament that these bishops or elders were

charged only with the responsibility of shepherding the flock of which they were a part.

Shepherd the flock of God which is among you, serving as overseers, not by compulsion but willingly, not for dishonest gain but eagerly. (1 Peter 5:2)

Thus, friend, there is absolutely no evidence or authorization in the Bible for a group of elders or a single bishop to exercise authority outside of the local congregation. The church at Philippi, for example, did not have elders who could oversee the affairs of the congregation at Ephesus, or vice versa. There was no hierarchal structure in the early church other than Christ as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e apostles who laid the foundation. Instead, in the New Testament, congregations were organized on the basis of an eldership, with each eldership overseeing the work that was among them—overseeing their own flock—and who were responsible for guarding that flock and feeding that flock with the Word of God.

“For a church of Christ to be scripturally organized, it needs to go by the pattern of the Holy Scriptures. In the New Testament, we see churches with a plurality of elders (Acts 14:23) over one local flock (“tending the flock that is among them”—1 Peter 5:2ff.). There is wisdom in God’s plan, because He made sure that with a plurality of elders, if one man became morally or doctrinally contaminated, it would not necessarily contaminate the whole leadership. There is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hat God built into this. There were deacons in the New Testament, but not a ‘board of deacons,’ per se. Deacons in the New Testament served under men who were elders—men who had to meet certain qualifications, according to 1 Timothy 3:1–8. Deacons, too, had to meet certain qualifications, as found in 1 Timothy 3:8–13. Preachers were never overseers of the church in the first century. In God’s pattern, preachers serve under the oversight of elders. They are important, but they are not the leaders of the church, in the sense that they make the final decisions. So basically, Philippians 1 talks about the bishops and the deacons (bishops, of course, are elders, since these are interchangeable words). So, you have elders serving over a local flock, with deacons serving under their authority. Preachers do the same thing, and members also follow the oversight of the elders who rule over them (Hebrews 13:17). That’s God’s plan, and it is one we need to follow.” (B.J. Clarke – Minister)

So, you see, God's house has a Foundation, a Builder, a name, and, as we have just learned, a unique organization. Is the religious house you are a part of organized according to the Lord's specifications?

Christ the Ordainer of Acceptable Worship

Now let's take a look at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Lord's house. One of those characteristics has to do with its unique form of worship. In God's house, Jesus directs that we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John 4:24)

Did you hear what Jesus said there? He said that we must worship God in truth. And as we learned in earlier lessons, "the truth" is the same thing as "the Word of God." So, to worship God "in truth," we must worship God according to the words of God.

The words of God, the Bible, teach us that we can also worship in vain.

And in vain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Matthew 15:9)

Thus, we see that not just any kind of worship is accepted by God. Rather, we find in the New Testament that we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and that our worship must be authorized by God. What, then, are the elements of acceptable worship?

When Christians Assemble, They ...

Let's first of all notice that when Christians in the first century came together, and as God's house when we come together today, we must pray. Christians are to pray. They pray through ("in the name of") Jesus as the only tru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Prayer was, and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In God's house, not only do Christians gather together to worship, but let's notice also that they gather together to proclaim the Word of God. When God's house gathers together, the Word of God is preached. This preaching is designed for instruction and edification. It is designed to nurture and strengthen the residents of God's glorious kingdom, as well as to convert the lost to Jesus. The teaching of God's Word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the life and work

of the church. It is the source of food that Christians need to maintain their spiritual strength.

In addition to proclaiming the Word, let's notice that in the Lord's house, Christians also contribute each week to a common treasury. After God's house was established in the first century, there arose an immediate need to finance the work of the church. There were widows who were in need of money.

There were preachers who were in need of support. And there were families that were destitute. Individual Christians reached out to help those who were poor or who needed help. And as they did, they often would bring their money together in a common treasury that was collected each first day of the week. Under the Old Testament, Jews were required to give a tenth of what they had earned or produced. In other words, they were "tithing." Under the New Covenant (in God's new house), no such requirement has been imposed. Instead, according to 1 Corinthians 16:1-2, Christians are to give as they have been prospered. It is a free-will offering—an offering that must be given with a cheerful heart.

But this I say: H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h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So let each one give as he purposes in his heart, not grudgingly or of necessity;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2 Corinthians 9:6,7)

Now, in addition to giving each first day of the week, let's notice in God's house the Lord's Supper is celebrated each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a very important day in the life of the church because it is on this day that our Lord was resurrected from the grave. It was on this day—Sunday—that the church was established. And, according to Acts 20:7, it is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at Christians meet together, and that the church gathers for the purpose of worshiping God—and a part of that includes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The Lord's Supper is a special memorial meal that calls to remembrance the body and the blood of Jesus. Not only does the meal remind Christians of what Christ has done for them, but it also serves as a testimony to the non-Christian about the love of Christ for sinners. Just as singing, giving, preaching, and praying do not become commonplace (even though they are done every week), the Lord's Supper does not lose its significance when

celebrated each week as well. In the first century, the Lord's Supper was a central part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and its weekly observance continues to be an identifying mark of the Lord's house today.

Finally, when God's assembles together for worship, we find that they both praise God and edify one another through singing.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Colossians 3:16)

Yes, music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Yet, the music of the New Testament church is uniquely different from that which is often encountered in many denominations today. The music found in God's house is a cappella. That is to say, it is singing without the use or the accompaniment of a mechanical instrument.

"Instrumental music was not introduced until the seventh century A.D. There is no indication by the 'church fathers' in the first three or four centuries of the church that it was ever even mentioned as being introduced into Christian worship. There may have been a few individuals who might have been talking about it, but it was never accepted as church practice during the first four or five centuries of the church's existence. In the 900s, it was finally brought in as a regular part of Christian worship. It so divided the Christian world at that time that the Eastern Orthodox Church never could accept it, and does not accept it today." (Ben Mosley)

When the use of mechanical instruments did gradually begin to be introduced into the worship services of various denominations, there were nevertheless some very prominent denominational preachers who were opposed its use.

"When the Protestant Reformation came along in the 1500s, even some of the greatest reformers (such as John Calvin, John Wesley, and Martin Luther) were every aggressive against the use of instrumental music in worship." (Ben Mosley)

"Music, as a science, I esteem and admire: but instruments of music in the house of God I abominate and abhor. This is the abuse of music; and here I register my protest against all such corruptions in the worship of the Author of Christianity." (Adam Clarke – Clarke's commentary on Amos 6:5)

"I have no objections to instruments of music in our chapels, providing they are neither heard nor seen." (John Wesley – Clarke's commentary on Amos 6:5)

While it is noteworthy to observe that various Bible scholars of the past deplored the use of mechanical instruments of music in worship, it is of greater significance to note that the New Testament nowhere authorizes their use today.

"When it comes to deciding what we do in worship, what the plan of salvation is, or how the church is to be organized, all of that has to be determined not by popular vote of uninspired men, but it has to be determined by asking, 'What did Jesus say about this through His apostles and through His own words in His earthly ministry?' Therefore, now that we know what He said, are we willing to accept His authority and to do what He said to do in exactly the way He said to do it?" (B.J. Clarke – Minister)

The commandments of the New Testament for Christians to sing praises to God do not mention a mechanical instrument. In fact, in Ephesians 5:19 we learn that the word "psalms" that is used to translate the word psallo literally meant "to sing" exclusively. That's exactly how Walter Bauer translated it in his well-known Greek dictionary. When God gave that specific commandment "to sing," that automatically excluded all other types of music.

"The reason we don't use instrumental music is because it is not authorized. People will often say, 'But it doesn't say not to.' That really has nothing to do with it. Suppose, for example, you get up in the morning, you feel bad, and so you go to the doctor. The doctor says you have a virus. So he writes you a prescription that calls for sulfur. You take it to the pharmacy, the pharmacist looks at it, and says, 'This calls for sulfur. But I'll add a little penicillin, too.' You learn about it. You go back and ask, 'Why did you add that?' He says, 'Well, it didn't say not to.' That had nothing to do with it. All he had the right to do was to ask, 'What did he prescribe?' The only way we can know what pleases God is, 'What does His Word say?' Every verse in the New Testament dealing with music in worship, or the kind of music God wants, refers to vocal music. Thus, that is what is

authorized, and nothing else is. For example, when God told Noah to make the ark of gopher wood, nowhere do you read that he said, 'Don't use hickory' or 'Don't use walnut.' When He said 'gopher wood,' that excluded every other kind of wood." (James Meadows)

Indeed, the unique singing found in God's house is most assuredly a cappella (that is, without the accompaniment of mechanical instruments). But what abou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Lord's church? Weren't musical instruments of music used in the Old Testament? "Yes, they are, but the Old Testament reflected a very elementary scheme of things—a carnal system according to Hebrews 9:10. The Old Testament contained the offerings of bloody sacrifices. The Old Testament had the burning of incense. The Old Testament had a physical, tribal priesthood through whom the rank and file of the people approached God. But that carnal system was laid aside, as the writer of Hebrews argues in chapter nine of that document. The Old Testament regime was superseded by a spiritual system. It behooves, then, the truth seeker of today (and this is important) not to go beyond what is written in the Word of God. That's very important. As God has specified the elements of the fruit of the vine and the bread to be utilized in the Lord's Memorial Supper, so He has specified (and this is important) singing as opposed to playing an instrument. I am sure that none of us would want to add rice or Coca-Cola® to the Lord's Supper, even though we might like them, and even though God has not specifically condemned them. Well then, what about adding rice, Coca-Cola®, and mechanical instruments to the worship? Would this really be acceptable? Christians of the first century had instruments of music at their disposal, but they chose not to use them (and that is important) as a part of their worship. It was an extremely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the Lord's church at that time." (Ben Mosley)

So, friend, once again I ask you: Does the church where you attend have thi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Does the church you attend worship according to the Bible?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cappella music, and the other unique forms of worship (along with the unique foundation, organization, name, Founder, and Builder), are all essential parts of what make up the New Testament house of God.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se unique marks are but a few of the examples found in the New Testament that reveal the peculiar nature of the Lord's church—the Lord's house.

Other marks would include its unique doctrine, which is the Bible (the Word of God). This work—the work of the church—includes a narrow scope involving evangelism, edification of its members, and benevolence (that is, helping those who are poor or who are in need).

The house of God also has a unique membership that is dedicated to being disciples of Christ and who simply wear the name “Christian.” Many of the religious names worn today were not in existence during the first century. Instead, baptized believers in the Bible wore the name of the One Who gave His life on Calvary.

A study of the New Testament will also reveal that each individual Christian is a part of the priesthood. According to the Bible, a clergy/laity system should not exist. In the sight of God, every baptized believer is considered a priest, and therefore is able (and is expected) to minister within the house and temple of God.

Finally, the Lord’s house has ministers such as deacons and preachers (or evangelists) who are required to meet certain qualifications as outlined in the Book of 1 Timothy. These men are simply servants in the body of Christ who, along with all members of the church, are prohibited from wearing religious titles such as “father” or “reverend.”

So friend, in answering our second major question, we can clearly see that God’s house does have many unique and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With each characteristic we can see how the church of Jesus Christ should be organized, how it should worship, and what it should teach.

Now, let us ask our third major question, which is: “Can we establish this house today?” In other words, can the house that Jesus built and established in the first century—the church of which we read in the Bible—be established or built today in your community or neighborhood? Let us ask one who happens to be both a carpenter and a preacher.

“Churches are a lot like houses. They have a design, and they have a designer. They have a foundation and structure. They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are peculiar to the individual homeowner. Every house has its own set of blueprints. If I were to build this house, or any other house (or try to), I would be lost without a set of blueprints. I could open up these blueprints and build this house just like the designer or the architect intended. But what is noteworthy is that I can take these plans

and build this house in North or South America, Africa, Europe, or Asia. As long as the materials were in existence that it took to build this house, I could build this house in any of these places today, or fifty years from now, simply by looking at and following the blueprints. When it comes to building the Lord's house, I can do the same thing. I can take this Bible and use it as a pattern or a set of blueprints, and build the Lord's house in North or South America, Africa, or anywhere else. If I use its instructions concerning its organization, its name, and its worship, and if I teach what the New Testament says concerning entrance into the Lord's church, is it not the Lord's house? If I could take a denominational creed book, study it, and establish a denominational church by using its by-laws, why couldn't I simply take the Gospel of Christ and establish a church of Christ? Indeed 'Christ's church' and 'the Lord's house' are one and the same. If we want to establish the Lord's house in any community, then we had better use the blueprints found in the New Testament." (Thomas Moore)

It is certainly true that the Bible should be used as a blueprint or pattern for establishing the church and for living the Christian life. Consider, for example, what the apostle Paul said about the Word of God being a pattern or blueprint.

Hold fast the pattern of sound words which you have heard from me, in faith and love which are in Christ Jesus. (2 Timothy 1:13)

Now listen to what the apostle Paul said about following the traditions as established by the apostles as revealed in the written Word of God.

Therefore, brethren, stand fast and hold the traditions which you were taught, whether by word or our epistle. (2 Thessalonians 2:15)

According to Ephesians 2:19–22, the divinely appointed apostles assisted Jesus in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We also learn in Matthew 16:19 that these same apostles bound on Earth (according to the force of the Greek language) what God had already bound in heaven. And they loosed on Earth what God had already loosed in heaven. As the Lord's ambassadors, these apostles were establishing church precedence—precedence that must be followed by Christians today. All disciples of Jesus must follow what the apostles taught and what was written down here by those apostles in the New Testament. This New Testament, which contains those traditions and

commandments, is a blueprint and a pattern. If we want to maintain our fellowship in the body of Christ, then we must obey these traditions.

And if anyone does not obey our word in this epistle, note that person and do not keep company with him, that he may be ashamed. (2 Thessalonians 3:14)

So, in answering our third major question: "Can we build the house of God today?," we must answer unequivocally, "Yes!" Friend, not only can we build the house of God today, but we must build it according to the divine specifications as revealed in God's holy Word as given by the apostles as they were inspired of the Holy Spirit.

Following apostolic authority as revealed in the written Word of the New Testament is not an option. What was written here must be obeyed. It must be followed. And, according to an Old Testament principle found in Deuteronomy 4:2, we must not add to the Word of God. That same principle is found in the New Testament as well.

For I testify to everyone who hear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If anyone adds to these things, God will add to him the plagu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and if anyone takes away from the words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from the Book of Life, from the holy city, and from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Revelation 22:18,19)

Now friend, let me ask you something. Have you, or those with whom you worship, added something to the Lord's house that was never intended or authorized by God? Does the church where you attend possess the characteristics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If you were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church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church you now attend, would you find a church built upon Jesus? Does the church to which you belong wear the name of Christ? Is Jesus the Head of the church where you attend? Is that church organized with qualified elders and deacons? Does it worship in truth?

And, finally, does the church where you now attend teach that there is only one church to which baptized believers must be added? If not, then I plead with you to go and search today for a true church of Christ. So far, we have learned that indeed the Lord does have a house, and that house is also known as the church. It's also known as the kingdom of God.

Now the Lord's house has a Builder. That Builder is Jesus Christ. And we have noted that the Lord's house has many unique and identifiable characteristics. We also have learned that in establishing God's house today, we must follow the blueprin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and that we must not deviate from that blueprint.

Now, friend, are you a member of God's house? If you are a member of God's house, have you been guilty of altering the divine pattern for God's house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ord of God?

You know, the Lord has only one house. If that house exists within your community, why don't you go and search for it and become a member of it, even today? If it doesn't exist within your community, why not begin today by taking this Bible as a blueprint and establish a house as designed by Jesus. Establish the church of Jesus. Remember, in John 4:24 Jesus said that God is a Spirit, and they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We've also learned from John 17:17 that the Word of God is truth. Therefore, we must worship God according to truth—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re you worshiping God in truth? Are you a part of a church that is established upon truth? Remember that Jesus sai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ABOUT BAPTISM

In the world today there are many differing viewpoints about baptism. Some say that babies should be baptized, while others say that it is reserved only for adults. Many disagree on the very method of baptism. Some believe that baptism is necessary for salvation, while others do not. What is the truth about baptism?

Have you ever wondered about whether or not you needed to be baptized? And, if you have been baptized, was your baptism for the right reason as described in the Bible? Let's listen now to John Moore as he leads us in our study of searching for truth about baptism.

Water! It is one of our most precious resources. Without it, this world as we know it would not exist. We absolutely have to have it in order to sustain life. In fact, it quenches our thirst, it can cleanse us, and it can make us feel like a new person after a hard day's work.

Is it any wonder then, that in the Bible, water is used by God as an important element and symbol for purification and cleansing? Whether it was the flood of Noah that cleansed the Earth, the ritual purification for cleansing in Judaism, or in the New Testament where we read of thousands upon thousands being baptized, water was a very important part of God's plan in saving souls.

But how, and why, was it a part of God's plan?

Why were believers baptized in water?

And is it necessary that a person be baptized today for salvation?

If so, what does a person need to know before he or she can be baptized?

Before we begin our search, I want to ask you to do something. I would like to ask you to answer some very important questions. If you need to, stop the program for just a moment and find something to write with and something to write on. When you return, I would like for you to write out a response to the following questions.

Number one, are you now in a saved relationship with God? Or has there ever been a point in your life in which you knew you were saved? In other words, if you were to die today, would you go to heaven, or would you go

to hell? If you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simply write "I'm not sure."

Number two, if at this moment or at some point in the past you were saved, how did you become saved? In other words, what did you do or say to become saved (to become a Christian)?

Number three, have you ever been baptized? If you have, was it done by sprinkling, pouring, or immersion?

Number four, were you baptized as a small child or as an adult?

Number five, were you saved before your baptism or after baptism?

Number six, what was the purpose of your baptism?

Now, having answered those questions, let's begin our search for the truth about baptism. As we study the Bible, let me encourage you to think very seriously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if you are not yet saved, in this session we are going to be learning what you need to do to become saved.

However, if you feel you are already saved, let me encourage you as well to compare the answers you gave a moment ago to our questions, to the information that we will present in this session—so you can see if what you were taught about how to become saved is consistent and in keeping with the Word of God.

Remember, as we have observed over and over again, truth is what will make us free. The commandments of men and the traditions of men will not make us free. Neither will good intentions nor a sincere attitude, in and of themselves, make us free. Only Jesus and the power of His Word can set us free. So let's begin our search for truth, and as we do let's see what we

can discover about baptism. And as we search, let's answer these four very important questions.

Number one, what is baptism?

Number two, what is the purpose of baptism?

Number three, who should be baptized?

Number four, have you been scripturally baptized?

Let's begin with the first question: "What is baptism?"

"Baptism is an immersion. It is a word that was very commonly used in the New Testament days, and not strictly in a religious sense. It was used, to my understanding, when a ship sank. It was spoken of in this very same type of language that is used with regard to what we call 'baptism.' The Scriptures do speak with regard to more than one type of baptism, such as the baptism of John. There also was the baptism of fire an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ut we primarily need to center our thoughts on the baptism that we find that pertains to all of us. When you begin to look at the Scriptures, it will tell us something of the nature of that baptism. One, it's obviously always done in water. Reference is made to individuals 'coming up out of the water.' Clearly they had been in water." (Kenneth Ratcliff – Elder, Attorney)

Consider, for example, what happened in the first century when an evangelist by the name of Philip taught a man of Ethiopia how to become a Christian. That story is recorded in Acts 8. There we learn that the Ethiopian was on his way from Jerusalem, going toward Gaza. He was sitting in his chariot, and was reading from the Old Testament book of Isaiah.

It was at this point in the story that Philip entered and heard him reading from Isaiah 53 about a servant of God Who would suffer on behalf of sinners. While reading about the sacrificial nature of this suffering, the Ethiopian asked Philip the following:

So the eunuch answered Philip and said, "I ask you, of whom does the prophet say this, of himself or of some other man?" (Acts 8:34)

Notice how Philip responded:

Then Philip opened his mouth, and beginning at this Scripture, preached Jesus to him. (Acts 8:35)

From this passage we can clearly see that Philip taught the Ethiopian about Jesus.

Teaching someone about Jesus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deity of Jesus, about His love, about His power, and most certainly about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Jesus.

Now let's consider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preaching about Jesus.

Now as they went down the road, they came to some water. And the eunuch said, "See, here is water. What hinders me from being baptized?" Then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So he commanded the chariot to stand still. And both Philip and the eunuch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he baptized him. (Acts 8:36–38)

In this great story, we learn not only that baptism was a part of preaching about Jesus, but we also learn something about the mode or manner of baptism.

In this instance, notice how both Philip and the Ethiopian went down into the water.

It was then, when they were in the water, that Philip baptized the Ethiopian.

Thus, when one is immersed, he or she is plunged beneath the water.

The person is completely covered.

In fact, the person is being buried—which is exactly how the apostle Paul describes baptism: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also were raised with Him through faith in the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Colossians 2:12)

In reference to this passage, Adam Clarke, a well-known Bible scholar and preacher from the Methodist Church, concluded as well that the baptism of the New Testament was done by immersion:

"Alluding to the immersions practiced in the case of adults, wherein the person appeared to be buried under the water, as Christ was buried in the

heart of the earth. His rising again the third day, and their emerging from the water, was an emblem of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 Adam Clarke (Clarke’s Commentary p. 684)

Notice also how a preacher from the Reformation period—a man by the name of John Calvin of the Presbyterian Church—described baptism.

“The very word ‘baptize’, however signifies immerse, and it is certain that immersion was the practice of the ancient church.” – John Calvin (Institutes, Vol. 3, p. 343)

Today, however,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have adopted the practices of sprinkling or pouring as a form of baptism.

Yet, nowhere in the New Testament is this practice of sprinkling or pouring connected to baptism.

“Sprinkling or pouring water on someone as a form of baptism is not a part of authentic Christianity. In the Greek language, which was the language in which all of the New Testament documents were originally written, there were words for both sprinkling and pouring. The word for sprinkling is *rhaino*, and would be used to describe the sprinkling of blood (in a sacrifice, for example). The word for pouring is *cheo*.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although both of these words were available to New Testament writers, they are never used in the New Testament in association with baptism. The only word that is used in association with baptism is *baptisma*, which has the root meaning of to submerge, plunge, or immerse.”

Rick Brumback – Minister, Bible Professor

Now however, you might be asking, as some have, whether or not there was a sufficient amount of water in the land of Palestine during the first century to be able to baptize the large numbers of people who the Bible says were being baptized in, for example, Acts 2 and also John 3.

Let me tell you first of all that baptism by immersion does not always require a large amount of water.

Baptism by immersion has been done in some very small places, such as bathtubs or watering troughs.

Second, I would add that in first century, sufficient water was available, both in the rivers and streams of Palestine, as well as in the many water-collection systems built by the people of the ancient world.

Third, because of the Jewish emphasis upon ritual cleansing, many hundreds of baptisteries (known as miqvehs) were already in place in and around major cities and places of worship.

In Jerusalem alone,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approximately 150 of them dating to the time Christ.

So in answering our first major question, "What is baptism?," we must conclude that the baptism required of sinners under the New Testament was a baptism by immersion—that is, being plunged beneath the water). It was not a baptism done by sprinkling or pouring.

Now, let's answer the question, "Why?" Why were sinners being baptized? In other words, for our second major question, "What was the purpose of baptism?" Was there something magical or mystical about the water that regenerated sinners in the first century (or even today)?

Again, let's go back to the Bible and let the Bible be our guide for ascertaining truth in regard to that subject. And as we do, let's notice that under all three systems of religion or periods of time that are mentioned in the Bible, God used both blood and water as a means of spiritual cleansing and purification. Those periods of time and systems of religion are known as the Patriarchal Age, the Mosaical Age, and the Christian Age.

In the Patriarchal period, water was used to cleanse the Earth and to save Noah and his family from destruction. Those floodwaters were spoken of by Peter as a figure for baptism in the Christian Age.

"... who formerly were disobedient, when once the Divine longsuffering waited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being prepared, in which a few, that is, eight souls, were saved through water. There is also an antitype which now saves us--baptism (not the removal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1 Peter 3:20,21)

Under the Patriarchal Age, God also used the symbol of blood (the blood that came from animals) as a means for justification and for a covenant. He did this in the cases of Abel, Noah, and Abraham.

Under the Mosaic Age, God likewise used the symbol of blood as a means for purification and redemption—as in the story of the Exodus when God saved the nation of Israel from the death of their firstborn sons by passing over the doors of those who had placed blood on their door posts.

Especially in the book of Leviticus is the use of blood emphasized, as blood was sprinkled on the altar, on the priest, and occasionally on the people. In addition to blood, water was likewise used under the Mosaic Age as a symbol for justification and purification. It was used for the purpose of purifying the priest who came to serve in the temple or tabernacle. It also was used to purify and cleanse the leper who was seeking re-admittance into the camp of Israel. The use of these two elements under these two systems served as an important basis and foundation for their usage in the New Testament era.

Under the Christian Age, Jesus shed His blood for the purpose of purification and cleansing. He was scourged. He was ridiculed. Then He was hung on the cruel cross of Calvary. It was on that cross that Jesus shed His blood. His blood was pure and innocent, and that blood was offered as a payment to purchase us and our freedom from the slavery of sin.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aimless conduct received by tradition from your fathers,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1 Peter 1:18,19)

Not only does the blood of Jesus redeem, but it also justifie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hrough faith,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God had passed over the sins that were previously committed, to demonstrate at the present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Romans 3:23–26)

“The word ‘justification’ is a most interesting word, and as we look at it, it shows truly how much God loves all men everywhere. The word ‘justified’ in the original text carries with it the concept of being ‘not guilty’ or ‘to

be acquitted.’ So there is a point in time in which God can say—that is when we reach the blood of Christ—that man no longer is guilty of that sin. He has been ‘justified.’” Norman Starling – Evangelist

Most assuredly, then, the blood of Jesus saves.

Yet, just as God under the Old Testament used both blood and water to purify and to cleanse, He likewise, under the New Covenant today, uses both blood and water in the process of justifying the sinner.

To better understand this relationship between blood and water, let’s turn our attention to the Book of Romans, where the Holy Spirit revealed how the blood of Jesus and the waters of baptism work together to bring about salvation.

In the Book of Romans, we find that the apostle Paul, in chapter 1, reminds his readers that the Gospel—the Word of God—is the power unto salvation.

In chapters 2 and 3, he lets his readers know that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The word “all” in this passage refers to all classes and nationalities of people. In this same chapter and in chapter 5, we learn that all of these people can be saved—they can be justified—by the blood of Christ. They can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by means of Christ’s death.

But it is in chapter 6 that we learn how those sinners are saved, and the point at which they are saved. Then Paul goes on to say as well how a Christian should live once he or she is saved.

But God be thanked that though you were slaves of sin, yet you obeyed from the heart that form of doctrine to which you were delivered. (Romans 6:17)

Here we see on the one hand that those who were servants of sin had on the other hand become servants of righteousness. What was it that made the difference? What was it that made them free from sin? How is it that they were able to have access to the benefits of the cleansing blood of Christ? In other words, what did they do to become Christians?

First of all, in answering that question let’s notice that they were obedient. They did not merely “believe” on the name of Jesus to be freed from their

past sins, because faith alone cannot save. True saving faith involves works. It involves doing the will of God.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You do well. Even the demons believe--and tremble! But do you want to know, O foolish man,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James 2:19,20)

You see then that a man is justified by works, and not by faith only. (James 2:14-17 & 19-24)

The necessity of obedience was also confirmed by Jesus.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Matthew 7:21)

Merely crying out to the Lord, or even boasting of what we have done in His name, is not sufficient.

Jesus said we must do the will of the Father.

While the works of men cannot save, the works of God can!

"But he who does the truth comes to the light, that his deeds may be clearly seen, that they have been done in God. For everyone practicing evil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be exposed." (John 3:20,21)

Friend, when we do what the truth says, that's how we come to the light. When truth is obeyed, it reveals that God is saving the sinner. None of us—by ourselves, or in and of ourselves—can save ourselves.

Yet when a sinner responds to truth, and when he or she obeys that truth, God saves that person. That's exactly what happened in Romans 6. When those sinners became free from sin, they did so when they were obedient. Now that we've learned they were obedient, let's ask, "What was it that they were obedient to?"

But God be thanked that though you were slaves of sin, yet you obeyed from the heart that form of doctrine to which you were delivered. (Romans 6:17)

So what, then, did they obey? They obeyed the form of doctrine. But what was the doctrine? What was it that had they been taught?

Moreover, brethren, I declare to you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and in which you stand, 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at word which I preached to you--unless you

believed in vain. For I delivered 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inthians 15:1–4)

As in Romans 6, here in 1 Corinthians 15 the apostle Paul makes reference to something that he had delivered and entrusted to Christians. What was it? It was his preaching about the death, the burial,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ese three facts are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Gospel of Jesus. They are fundamental in securing our salvation. Concerning Christ's death, the Bible speaks about His horrible scourging and the terrible crucifixion He endured. But it also speaks about the blood that He shed on Calvary's cross.

For when we were still without strength, in due time Christ died for the ungodly. For scarcely for a righteous man will one die; yet perhaps for a good man someone would even dare to di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For if when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Romans 5:6–10)

"The law says we die. But Jesus says, 'I will take the place of sinful man.' He, for a time, was separated from God. He satisfied the justice of God for man so that all people who, by faith, reach the blood of Jesus can be justified—declared 'not guilty' and 'free from sin.'" Norman Starling – Evangelist

Not only did the Gospel message include news about the death and blood of Jesus, but it also included a detailed account about His burial. It told of how Joseph of Arimathea and Nicodemus took the body of Jesus down from the cross and prepared it for burial.

It told of how they placed the Lord's body in a tomb, and how that, within the confines of that burial chamber, our Lord's body lay until Sunday morning when by the power of God He was resurrected.

His resurrection meant that He had conquered death, and that He indeed was the Messiah.

Yes, the Gospel message reveals how Christ victoriously conquered Satan, sin, and the grave.

By means of this victory, Jesus bridged the gap between God and the sinner.

According to Isaiah 59:1–2, sin is what separates a person from God.

But by means of Christ'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sinners now have the hope of walking across that bridge and being reunited with God.

However, when sinners are obedient to that form of doctrine that was revealed to them—that is, the death, the burial, and the resurrection—does that mean that they have to literally die, literally be buried, and literally be resurrected in order to be obedient? Let's listen again to Romans 6:17 to find out exactly what it is that they must be obedient to.

But God be thanked that though you were slaves of sin, yet you obeyed from the heart that form of doctrine to which you were delivered. (Romans 6:17)

Friend, what they had obeyed was not the doctrine (or teaching) about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Jesus. What they had obeyed was a form of that teaching. In other words, they obeyed a pattern or something like that teaching. What was it, and did it include water baptism? Let's listen again to the apostle Paul.

Or do you not know that as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Therefore we we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For if we have been uni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certainly we also shall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Romans 6:3–5)

It is here, in this passage, that we learn how justification and forgiveness are acquired. It is here that we learn how the death of Christ and His blood are intertwined with the waters of baptism. It is here that we learn how sinners at Rome became Christians, for just as Jesus had died on the cross, these Christians chose to die to the old man of sin by confessing Jesus as Lord.

Just as Jesus was buried in a grave or tomb, so these sinners were buried in a watery grave of baptism. And, just as Jesus, by the power of God, was resurrected to a new life, these sinners were, by the same power, brought forth out of baptism to walk in newness of life.

Prior to baptism, they were spiritually dead. But after baptism, they were alive in Christ; they were in a resurrected state. Baptism, therefore, is for those who are dead in sin.

To be spiritually resurrected and made alive in Christ, a person must be united with Jesus in baptism. The blood of Jesus and the waters of baptism are brought together in a very beautiful, life-saving way. It should therefore not be a surprise to hear what Jesus said to a believing Jew by the name of Nicodemus.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3,5)

Being born again, and thereby becoming a child of God, requires that a person be born of the water; that is to say, they must be baptized.

As we have learned already in Romans 6:17–18, to be free from sin—and become a servant of righteousness—a sinner must be obedient in baptism to that form of doctrine as expressed in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Christ.

In Romans 1:16 we learn that the Gospel is God's power "unto salvation."

In Romans 6:17 we learn that that Gospel can be, and must be, obeyed.

Since that is true, we must therefore come to understand the gravity of the following passage of Scripture:

"... and to give you who are troubled rest with us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taking vengeance on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on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2 Thessalonians 1:7,8)

So friend, the Gospel must be obeyed! A sinner cannot save himself or herself by literally being crucified, or by literally being buried, or by literally being resurrected. But a sinner can do something similar to this.

A sinner can be baptized into Christ and then arise to walk in a new life. At this point you might be asking, "Can water, in and of itself, save?" Is there something magical or mystical about water that can save a soul from death? No, friend, when we read the Bible in its entirety, nowhere does it suggest that water alone can save. But neither does the Bible teach us that faith alone can save.

It is God's grace that saves a person. But, also, it is God's Word, the truth, which tells us when a person is saved, and at what point they ar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The only way to know whether baptism is essential for salvation is to check the biblical record. And 1 Peter 3:21 comes right out and says that baptism does also do something. What does it do? The Bible says baptism does also now save us. That's not the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It is not taking a bath to remove bodily dirt. But it does give us a good conscience, it is for the remission of sins according to Acts 2:38, and it washes away sins according to Acts 22:16. The blood of Christ is what washes our sins away (Revelation 1:5). But when does the blood of Christ wash our sins away? It is when, as a penitent, confessing believer, we're baptized." (B.J. Clarke – Minister)

This principle of being cleansed by God when we do as He directs can also be seen in the Old Testament story of the Syrian general by the name of Naaman who was seeking to be cleansed of his leprosy. Naaman, in an attempt to rid himself of this horrible disease, came to the prophet Elisha, hoping to receive some great pronouncement. Instead, Elisha told Naaman to dip himself seven times in the river Jordan. At first, Naaman resisted the idea that the river Jordan could somehow cleanse him. And, indeed, the waters of the Jordan River by themselves alone could neither then nor now cleanse leprosy.

But when that water was coupled with obedience to the command of God, the Syrian general was immediately made whole. His leprosy then, and only then, was cleansed. Likewise, today no amount of water by itself can cleanse us from the leprosy of sin.

But when baptism is coupled with a true, genuine faith, then God says we can be saved by the blood of Christ. It really is a matter of trusting in

God—to do what God said to do, when God said to do it, how God said to do it, and for the reason God said to do it.

So, in answering our question about the purpose of baptism, we have learned that baptism is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also the means by which we become a servant of righteousness, a child of God, and a Christian.

“In order for one to be saved and to be able to reap eternal life in heaven, one must be a member of Christ’s body. Paul says in Ephesians 1:3 that all spiritual blessings are ‘in Christ.’ One of those spiritual blessings is salvation (2 Timothy 2:10). In order for one to have salvation—which is ‘in Christ’—one must get into Christ. Paul said in 1 Corinthians 12:13, ‘For by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Alfred Washington – Minister)

So we also can see that baptism places a person into the body of Christ, which is the church of Christ. It is also the means by which a person is clothed with Christ. It is the point in the process of conversion in which a person can call himself or herself a Christian. Baptism, then, serves a very unique purpose, of which a person must be fully aware.

So this, then, leads us to our third major question: “Who should be baptized?” In other words, what does a person need to know or do before baptism? And what about babies? Should babies be baptized?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let’s begin by listening to the words of Jesu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9:19)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Mark 16:15,16)

From both of these passages, we can learn that something very important must occur before one can be scripturally baptized. What is it? Quite simply, it is preaching and believing. In order for a person to come to God, a soul must be taught and must hear the Word of God.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shall all be taught by God.' Therefore everyone who has heard and learned from the Father comes to Me." (John 6:45)

In addition to being taught, the one who wishes to be baptized must believe what is taught. When Jesus said,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we must ask "What is it that must be believed?" Let's hear the entirety of that statement in its context.

Jesus said,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He who believes (that is, he who believes the Gospel)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The one who wants to be baptized must believe the Gospel. A part of believing the Gospel demands that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avior of the world and the very Son of Go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Belief in Jesus comes when we hear the almighty Word of God: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Romans 10:17)

But now let's also notice that believing the Gospel demands that we believe in what Jesus taught in His New Covenant. In the New Covenant, Jesus taught that before a person can come to God in baptism, he or she must repent.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38)

Now remember, as we studied in earlier lessons, repentance isn't merely feeling sorry about our sins. The Bible teaches that godly sorrow leads to repentance.

Now I rejoice, not that you were made sorry, but that your sorrow led to repentance. For you were made sorry in a godly manner, that you might suffer loss from us in nothing. For godly sorrow produces repentance leading to salvation, not to be regretted; but the sorrow of the world produces death. (2 Corinthians 7:9,10)

What is repentance? Repentance means to change—to change from living a life of sin to living a life of righteousness. Repentance also demands that we stop living according to our own will, and start living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b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Jesus: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Luke 9:23)

So who, then, can be baptized? It is the person who believes the Gospel and repents of their sins. But still further, we learn that those who can be baptized are those who have confessed.

"Therefore whoever confesses Me before men, him I will also confess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 (Matthew 10:32)

Now let's put this all together. Baptism must be preceded by teaching—and then belief, repentance, and confession. So, who should be baptized? It is the sinner who is outside of Christ—the one who is taught, the one who believes, the one who repents, and the one who confesses.

But what, then, should we do about baptizing babies or small children? Is it right or necessary to baptize them?

"It is not necessary to baptize a baby, nor is it scriptural. Baptism is for those can hear the Word of God, who can believe it, who can understand it, and, based on that understanding, act upon it. Jesus said,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Not only that, but babies are not lost. They are 'safe,' as Jesus said in Matthew 18:3 when He said that we are to become as little children because little childre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are in the kingdom of God. Babies are not lost. And they do not need to be baptized. They wouldn't know about it anyway, and wouldn't understand what was being done anyway. Baptism is for those who are accountable, who are mature, who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thus to act) by their own choice." (Bobby Liddell – Minister, Bible Professor)

"The only reason a baby would need to be baptized is if the baby had sins that needed to be remitted. But according to Ezekiel 18:20, 'The son shall not bear the iniquity of the father; neither shall the father bear the iniquity of the son.' Deuteronomy 24:16 lays down the principle that every man shall be put to death for his own sins. A baby has not transgressed the law

of God (1 John 3:4). So a baby doesn't need to be baptized because he has not sinned, and he does not qualify to be baptized because he hasn't believed." (B.J. Clarke – Minister)

Sin is something committed, not inherited. Now let us address our last major question. As we do, let us make it very personal. Let's talk about you. Let's talk about you, God, and baptism. As we do, let us ask the question, "Have you been scripturally baptized?" In other words, have you been baptized according to what the Scriptures teach—according to the Bible, the Word of God?

Deciding whether or not to be baptized is a very important decision. In fact, it'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you can make. If you haven't been baptized, then according to the Bible you are still yet in your sins because the saving blood of Christ, and the benefits that we receive from that blood, can be realized only in the God-ordained act of baptism.

If you have never been baptized, then according to the Bible you are not saved, and you are not in the kingdom of God.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5)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Mark 16:15,16)

At the beginning of this lesson, I asked you a series of very important questions, the first of which was, "Are you saved?" So, friend, I ask you again: "Are you saved?" Are you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Have you done things in your life you knew were wrong? Are you burdened with the guilt and the weight of sin? Are you, in fact, a sinner separated from God? Or, are you uncertain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God? Wouldn't you like to be absolutely certain? Wouldn't you like to be sure, and know that you are saved?

If you are separated from God because of your sin, please know that the blood of Jesus can justify sinners. It can cleanse your conscience. It can make you whole again. In fact, it can bring sweet redemption to your heart that has been held captive by Satan.

However, in order to have forgiveness from God, you must be obedient to His will by being baptized. In fact, I encourage you this very hour to go and find the individual or the church that gave you this program. Ask one of their members to baptize you into Christ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When you are baptized, you can then know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You can then know that you are a part of the family of God, the church.

When you obey the truth by being baptized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your soul can be purified. And according to Colossians 1:22–23, if you continue in the faith—grounded and settled and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then, when you leave this life, you can anticipate the mercy of God and expect Jesus to present you before the heavenly throne as one who is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Once again, this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your life. But equally important—if you believe you are saved already—is the decision about whether or not what you did to become saved is consistent with the Word of God.

Did you obey the commandments of men? Or did you obey the commandments of God? Do the answers you gave at the beginning of this session match those as revealed in the Word of God as presented in this program?

For example, were you taught that, to become a Christian, you simply needed to believe in Jesus, asking Him to come into your heart? Or, were you taught that to be saved, you needed to recite a prewritten prayer? Or, were you taught that to be saved, you needed to believe on Jesus by confessing His name, repenting of your sins, and being buried with Him in baptism?

If you were baptized, were you baptized by sprinkling, pouring, or immersion? Were you baptized as a small child or as an adult? True baptism as prescribed by God is to be done by immersion, and requires both faith and repentance.

And, as we have seen, baptism is for the purpose of uniting a sinner into the death of Christ for the purpose of washing away sin. Was this the

reason you were baptized? Were you baptized to be saved? Or were you baptized, believing that you had been saved already?

According to the Bible, baptism is for the remission of sins. So if you were taught that you were saved before baptism, could you have been baptized for the remission of sins? If your answers haven't matched the truths we have presented from the Bible, let me encourage you to correct your situation immediately.

Being baptized for the right reason, in the right way, and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Gospel, is absolutely critical.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in the city of Ephesus when the apostle Paul found some disciples who had not been baptized for the right reason.

This story is recorded in the nineteenth chapter of Acts, and reveals that there were some individuals there who were practicing a form of Christianity (and who had even been baptized). However, after further inquiry by Paul, he soon discovered that their baptism had not been don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It was at that point that Paul corrected their false ideas related to their baptism—to which they responded by being baptized again. This time, however, their baptism was done in the name of Christ Jesus. Their first baptism was no doubt done with the best of intentions, but it was not done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Gospel.

I wonder how many today have been baptized with the best of intentions, yet their baptism wasn't according to truth. If for example, you were not baptized by immersion or for the remission of sins, can you honestly say that your baptism was according to truth and according to the divine pattern revealed in the Word of God?

Remember, you will be judged by the Word of God. Can you say—without any doubt—that your baptism was done exactly as the Bible prescribes—according to the divine pattern as revealed in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Christ?

Once more, that pattern requires that a sinner follow the steps of salvation, which involve...

Number one, hearing the Gospel.

Number two, believing the Gospel.

Number three, repenting of sins.

Number four, confessing the name of Jesus.

Number five, being immersed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then, of course, number six, living faithfully unto God.

If you are not absolutely certain about whether you have followed these steps completely, then please don't take a chance on missing heaven. Please obey the truth today. Remember that the truth and only the truth can make you free.

Have you obeyed the truth, or have you obeyed the commandments and traditions of men? If you obeyed the commandments or traditions of men, then obviously you have not obeyed the truth. Remember what the apostle Peter wrote when he spoke to those Christians who had obeyed the truth. He said their souls were purified.

Since you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in sincere love of the brethren, love one another fervently with a pure heart. (1 Peter 1:22)

Purified souls come from obeying the pure truth. The truth that comes from Jesus, as recorded in Matthew 7:21–23, is that not everyone who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Instead, those who “do the will of the Father” will be saved.

Friend, have you done the will of the Father? Have you been baptized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Please, don't delay another minute. Go in search of the church of Christ, and once you find that church, ask one of its members to baptize you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After your baptism, call yourself a Christian—and nothing more. Begin worshiping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Gospel.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never forsake the opportunity to assemble with the church. And finally, always remember the words of Jesus:

Then Jesus said to those Jews who believed Him,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My disciples indee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1,32)

Friend, now is the time.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is the day to believe and obey the truth. Now that you know the truth, will you obey it? Friend, tomorrow may be too late.

Jesus said,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Friend, do you love Jesus? If you love Jesus, I know you will respond to the truth about our Creator, to the truth about our authority in religion, to the truth about the church, to the truth about the house of God, and to the truth about baptism.

Friend, now that you know the truth, how will you respond? Will you trust in the Lord? Will you believe and obey the truth? Your eternal destiny will be determined by what you do with the truth. It's now in your hands. I pray and hope that you will live according to the truth.

We are thankful to the Lord for the opportunity to produce this material for the sake of the Kingdom. He makes all things possible. Thanks to those who financially made Searching for Truth possible.